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인천 통통 (通通)

인천은 '통통'합니다.
시민과 통하고 세상과 통합니다.
인천이 궁금하시다면
인천시 미디어와 인천시 SNS와
통하세요.
인천시는 시민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인천시미디어

인천시 시청소식지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방송 <민트TV>(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eneews.incheon.go.kr)
인천시 블로그 링크(incheonblog.kr)
인천시미디어 블로그 인천N조이(blog.naver.com/happyyou)
스마트폰 앱 인천시미디어(smart.incheon.go.kr)

인천시 SNS

인천시 소셜웹(social.incheon.go.kr)
인천시 트위터(twitter.com/smartincheon)
인천시 미투데이(me2day.net/incheon4u)
인천시 페이스북(facebook.com/flyic)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허락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부합니다.
구독문의 032-440-8306
(해외에 있는 친지에게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굿모닝인천〉의 못 다한 이야기 동영상으로 보세요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이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기사의 취재 영상부터 뒷이야기까지 눈앞에 생생하게!
종이매체에서 디지털매체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용방법

스마트폰으로 페이지 상단의 QR코드 촬영
스마트폰인 경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 〈인천시미디어〉 앱을,
테블릿 PC인 경우 〈굿모닝인천〉 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



Cover Story



세계 모든 이들의 평화 인사인
'메리 크리스마스~'를
인천 시민과 굿모닝인천 독자들에게 전합니다.
세 크리스마스트리에 담긴
독자들의 소원이
결실이 돼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굿모닝 인천, 메리 크리스마스'
作 김기충 010-5131-3146



CONTENTS

- 04 **소통과 화합**
- 06 **연말특집** 선교역사 기행
- 10 **포커스** GCF(녹색기후기금)사무국 출범
- 14 **따뜻한 겨울** 인천국제공항 즐기기
털실 외길 50년 송헌모사
- 24 **크리스마스 특집** 보니푸에리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외
- 26 **다양한 연말공연** 판타지 포 투 외
- 28 **문화뉴스** 별을 사랑한 미르 외
- 30 **아름다운 사람** 화이트 해커 이종호
- 32 **인천인이 사랑한 오래된 식당** 중국 음식점 '신성루'



- 36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산업화시대의 인천
- 38 **시정뉴스** “매립지 연장, 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외
- 42 **의정뉴스** ‘살기좋은 아파트 대책마련...’ 토론회 외
- 44 **생활정보** 2014 갑오년 인천시 사자성어 찾습니다 외
- 48 **이달의 서평** 좋은 아빠의 자격 외
- 49 **인천 사는 이야기** 정감 있는 구도심 풍경 외
- 50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신포문화의 거리
- 56 **2013년 과월호 목차**
- 58 **모닝 커피 한잔** 장부연 인천여성가족포럼 대표

06 그 언덕엔, 100년 역사의 예배당 종소리 울린다

올해 한 장 달랑 남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새겨진 25일. 이 하루 만으로도 12월은 한 달 내내 행복하고 가슴 설렌다. 인천은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의미 있는 도시. 그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길, 종교를 초월한 사랑에 영하의 바람이 불어도 이 겨울이 춥지 않다.

10 GCF 출범, 인천 글로벌 녹색수도 됐다

인천이 '세계환경 수도'의 명패를 단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시는 이달 4일 GCF(녹색기후기금)사무국 출범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기구 본부를 둔 도시이자 글로벌 녹색수도로 도약한다. 인천은 GCF와 더불어 세계은행(World Bank), 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도 함께하는 도시로 부각되어 환경과 국제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됐다.

소통과 화합 COMMUNICATION

인천과 통(通)하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손을 마주잡고 눈빛을 나누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인천시는 시민 여러분을 향해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 인천시 미디어 |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goodmorning.incheon.go.kr)
인터넷방송 **민트TV** (tv.incheon.go.kr)
인터넷신문 I – **View** (enews.incheon.go.kr)
스마트폰 앱 **인천시 미디어** (smart.incheon.go.kr)

| 인천시 SNS |

소셜웹 (social.incheon.go.kr)
트위터 (twitter.com/smartincheon)
미투데이 (me2day.net/incheon4u)
페이스북 (facebook.com/visionincheon)
블로그 (incheonblog.kr)

@Bulloger

시민께서 송영길 시장 트위터(@Bulloger)를 통해
문의한 것에 대한 해당 부서의 답변입니다.

social network
twitter
me2day blog
facebook

나는 굿모닝인천 마니아!

〈굿모닝인천〉독자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면,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세요.

누구나 추억하는 도시, 인천

독자 홍창호



문학터널에 하이패스는 언제 도입하나요. 겨울에 창문을 열고 통행료를 지불하려니 너무 춥고 번거롭습니다.

반갑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담당부서인 시 건설교통국 도로과(440-3774)에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학터널 내 하이패스 도입 시기 및 사업 계획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03번 버스의 동춘역 첫차 시간과 배차간격이 맞지 않고, 더군다나 기사는 승객에게 짜증을 냅니다. 버스를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시정 부탁 드립니다.

303번 버스를 이용하시는 데 불편을 끼친 점 대신 사과 드립니다. 303번 버스를 운행하는 강인여객(581-1738)에 확인한 결과, 공항행 동춘역 정류소 첫차 시간은 오전 5시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인천에 조성하고 있는 버스공영차고지나 조성할 예정인 버스공영차고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담당부서인 시 버스정책과(440-3964)에 확인한 결과, 현재 인천에 버스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조성 예정인 곳은 남동, 서부, 계양권역 세 곳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인천에서 스타트업 지원 차원에서 사무실을 무료로 빌려주는 사업이 있나요? 있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담당부서인 시 경제수도정책과(440-3278)에 확인한 결과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서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인천정보산업진흥원(250-2180)으로 문의하시면 좀더 정확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택시노동자 처우 개선을 65%로 정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시 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440-3846)에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번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사납금 인상금액 중 최소 65% 이상을 운수 종사자에게 배정할 것을 택시정책위원회 자문을 통해 권고하였습니다.

전철 내 스크린에 도착정거장을 표기해 주세요. 전철을 이용하기 불편해요.

인천메트로(451-2114)의 경우, 모든 전철 내에 설치된 스크린에 도착정거장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창호님은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굿모닝인천〉을 청라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어 친히 편집실로 전화를 주신 열혈 독자입니다. 그 인연으로 이번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내게 있어 인천은 서울에서 살다가 20여 년 전에 인천으로 이사왔다. 인천은 연고가 있어서 어릴 적부터 자주 왔다 갔다 했다. 특히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있는 자유공원은 지금도 기억 속에 선명히 자리 잡고 있다. 자유공원, 월미도, 연안부두... 인천은 누구나 한뼘쯤은 추억하는 도시다.

〈굿모닝인천〉이 좋은 이유 시정을 다루는데 국한되어 있지 않고, 지역잡지로서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아울러 담아서 좋다. 인천에 살면서도 정작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책을 보면서 새롭게 알 수가 있다. 언젠가 홍예문 주변의 카페들을 소개했던 기사가 기억난다. 커피 한잔에도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녹아 있는 법이다.

인천에 하고 싶은 말 인천을 서울의 주변도시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다. 인천은 거대한 공단과 세계적인 공항, 항구 등을 품은 광역 도시가 아닌가. 또 그 안에 유구한 역사와 문화가 흐르고 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인천을 아끼고 사랑했으면 좋겠다.

독자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창간부터 지금까지 〈굿모닝인천〉과 함께 한 독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께는 작은 선물(온누리상품권 1만원권 3장)을 드립니다. 문의 440-8305, goodmorning.incheon.go.kr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언덕엔,

100년 역사의 예배당 종소리 울린다

올해 한 장 달랑 남은 달력에 빨간색으로 새겨진 25일. 이 하루 만으로도 12월은 한 달 내내 행복하고 가슴 설렌다. 인천은 서양종교의 '홀씨'가 떨어져 100년 역사로 꽃핀 의미 있는 도시. 그 역사의 흔적을 따라 걷는 길, 종교를 초월한 사랑에 영하의 바람이 불어도 이 겨울이 춥지 않다.

글 정경숙 본지편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무엇을 하세요.” 종교를 떠나 어릴 적 크리스마스 전날이면, 다음날 아침 새하얀 솜이불이 온 세상을 포근히 감싸길 기대하며 잠이 들었다. 하지만 창밖으로 눈이 펄펄 내려도 이젠 밖으로 달려 나가지 않는다.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한 살 한 살 더 할수록 무뎠어지는 감성에 매년 다를 것도 없지만, 이번엔 무언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것만 같다.

그래서 길을 나섰다. 답동성당, 내리교회, 성공회내동교회...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인천에는, 옛 도심인 중구를 중심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오래되고 아름다운 예배당들이 많다.

답동성당 스테인드글라스로 스며든 아침햇살

오밀조밀한 답동 골목길을 지나 오른 언덕 위에서 고풍스러운 서양식 근대 건축물을 만난다. 1897년 프랑스 파리 외방선교회가 지은 답동성당(사적 제287호)이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이자 인천에서 처음 세워진 이 성당은, 1937년 개축공사를 거쳐 고딕에서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었다.

성당은 제물포성당에서 인천성당 그리고 답동성당으로 100여 년 세월을 비밀스레 간직하고 있다. 그 모습에도 고풍스러운 맛이 흐른다. 붉은 벽돌에 흰색 화강암으로 포인트를 둔 외벽에는 기품이 서려있고, 성당 중앙에 있는 돔형의 탑 위에 솟은 십자가는 파란 하늘과 조화를 이루며 선명히 빛난다.



1960년대까지 만해도 매일 정오와 오후 6시면 이 성당 종탑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바람결 따라 청아하게 울리던 그 소리는 사람들의 귓가를 지나 마음에 위안으로 다다랐을 것이다.

성당 내부로 들어서면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돈다. 스테인드글라스 창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한겨울 차디찬 공기를 데우고 마음까지 따스하게 감싸안는다. 담동성당 762-7613

내리교회 선교 100년의 향기 깊어라

고른 한낮. 탐스러운 햇살이 겨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빨강계 언 뺨을 어루만진다. 담동성당 뒷문으로 나와 신평문화의 거리를 지나 내동 개항로 53번 길을 오르면 내리교회에 이른다.

인천이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서 갖는 의미는 특별하다.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는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제물포항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들은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인천의 내리(내동)에 머물면서 선교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앗이 자라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내리교회로 꽃피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리교회를 ‘한국어머니의 교회’라고 부른다.

그 100년의 역사는 교회 곳곳에 흠뻑 배어있다. 본당 앞 작은 뜰에는 아펜젤러와 2대 목사인 존스, 이 교회가 설립한 신학교가 배출한 한국 최초의 목사인 김기범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또 본당 3층 로비에는 오래된 성경을 비롯해 교회 초기 때 사용하던 물건들이, 2층 복도에는 선교 역사의 현장을 담은 사진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내리교회 760-4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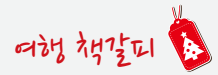
1 담동성당
2 내리교회
3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
4 홍예문
5 성공회내동교회



성공회내동교회 종교를 초월한 사랑, 가슴에 품으며

내리교회에서 머지않은 곳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성공회 교회인 성공회내동교회(인천시유형문화재 제51호)가 있다. 영국 중군 신부인 존 코프 주교와 의사 랜디스는 1890년 인천항으로 들어와 이듬해 교회를 짓고 병원을 세워 의료선교 활동을 했다. 교회 안 작은 화단에는 코프 주교와 랜디스의 흉상과 기념비가 서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먼 이국땅을 밟은 약대인(藥大人)의 숨결이 지금도 살아 숨 쉬는 듯하다.

교회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검박하면서도 고아한 멋이 흐른다. 화강암으로 견고하게 쌓아올린 중세풍의 석조에 한국의 전통적인 목구조 처마양식을 가미해 멋스럽다. 안으로 들어서면 한옥을 떠올리게 하는 천장 한가운데 있는 예수상이 시야에 들어온다. 본당 뒤쪽 세례대 위에 놓인 연꽃 문양의 십자가도 눈길을 끈다. 이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던 불교를 포용한다는 뜻으로, 종교를 초월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일깨우게 한다. 성공회내동교회 765-9004



성당카페 담동성당 마당 한편에는 아담한 카페가 하나 있다. 따스한 커피 한잔 손에 쥐고 자리에 앉으면, 넓은 유리창 밖으로 정겨운 옛 도심의 풍경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저 멀리 내리교회와 성공회내동교회도 시야에 들어온다. 커피, 궁중차, 허브티 등 다양한 음료가 있으며, 가격도 2천원 대로 착하다. 문의 : 762-7613

홍예문 성공회내동교회에서 송학로 19번길을 걷다보면 홍예문 위에 오른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많이 본 이 예쁜 돌문은 일본조계지에서 뚫은 터널로, 무지개를 닮았다하여 홍예문(虹霓門)이라 일컫는다. 그 일대에 인천항이 내려다보이는 전경이 일품인 '파란돌'을 비롯해 '히스토리', '아미가' 등 아기자기하고 예쁜 카페가 많다.

자유공원 홍예문 바로 곁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공원인 자유공원이 있다. 각국공원에서 만국공원으로 불리다 1957년 맥아더장군의 동상을 세우면서는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바다와 항구가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풍경,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한 폭의 그림이다. 광장에 있는 무대에서 상설공연이 열리니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을 기대해도 좋을 듯. 문의 : 761-4774

인천시역사자료관 / 제물포구락부 자유공원광장에서 남쪽 계단을 타고 내려가면 제물포구락부다. 이곳은 1901년 세워진 서양인들의 친목의 장소로 현재 스토리텔링박물관으로 새 단장했다. 곁에는 인천시역사자료관이 사이좋게 이웃하고 있다. 전통미가 깃든 한옥과 잘 꾸민 정원, 바다가 보이는 뛰어난 전망을 품고 있어 촬영지로도 인기가 높다. 문의 : 773-3498 / 765-0261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탑 한걸음 발걸음을 더 하면,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장소에 닿을 수 있다. 1986년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맞아, 한국 선교의 씨앗이 뿌려진 역사적인 장소에 기념탑이 세워졌다. 탑에는 아펜젤러 선교사 부부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청동상이 있고, 제물포항에 내리면서 울었던 기도문과 당시 인천에서 선교하던 모습 등이 새겨져 있다.

근대문화 역사 따라 걷는 길

(사)해반문화사랑회는 문화재청의 후원으로 중구 일대에 있는 근대문화재들을 둘러보는 '인천근대문화재 둘레길'을 개발했다. 그 가운데 하늘길은 담동성당과 내리교회, 성공회내동교회를 둘러보는 코스. 일명 '종교 순례의 길'로 총 1천200걸음, 25분 거리다. 해반문화사랑회는 이와 함께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해설사와 함께 둘레길을 걷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해반문화사랑회 : 761-0555

GCF 출범, 인천 글로벌 녹색수도 됐다

이제 인천은 '세계환경 수도'라는 또다른 이름을 얻게 됐다. 인천 송도국제도시는 이달 4일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출범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국제기구 본부를 둔 도시이자 글로벌 녹색수도로 도약한다. 이로써 인천은 전 세계인이 염원하는 초록빛 꿈을 실현하는 도시로, 동경과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은 GCF와 더불어 세계은행(World Bank),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도 함께하는 도시로 부각되어 환경과 국제도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됐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조병석, 정정호 자유사진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헬라 쉬프로흐 GCF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출범 축하 다양한 기후관련 행사

GCF사무국 출범에 맞춰 세계은행(World Bank),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도 이달 4일 송도국제도시에 함께 개소한다. GCF사무국은 G타워에서 오전 10시에 제막식을 가진 후 GCF의 미래 발전을 담은 영상 관람, 주요 인사들의 환영 및 축하, 축하공연이 진행된다. 축하공연은 인천시립합창단과 무용단이 선사한다. GCF 사무국 출범에는 현오석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헬라 쉬프로흐 GCF 사무총장, 김용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등 국제적인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한다.

우리시와 기획재정부는 GCF 사무국 출범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12월 2일부터 6일까지를 '기후금융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기후관련 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12월 2,3일엔 기후금융 글로벌포럼이 열린다. 포럼에서는 개도국의 기후금융운영 경험 공유 및 개도국 자체 제도를 활용한 기후재원 운용방안을 논의한다. UNDP,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이 참여한 가운데 웨라톤호텔인천에서 개최한다. 12월 5일과 6일은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제4차 이사회가, 12월 5일엔 기후재원 민간투자 국제세미나가 송도국제도시 컨벤시아에서 열려 새로운 투자 기회로서의 기후변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GCF 및 국제금융기구 역할에 대해 토의한다. 인천이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처하는 도시가 되어 첫 국제행사를 여는 셈이다.



세계은행, GGGI 사무국 함께 하는 국제도시

GCF 사무국 직원은 12월부터 송도에 들어오기 시작해 2014년 6월까지 50여 명이 상주하며 2020년까지는 500여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사무실은 G타워 9~12층까지 4개층을 사용하고 인원이 늘어나면 3개층(13~15층)을 더 확대한다. 10,11층은 직원 사무실로, 12층은 사무총장실, 회의실로 사용한다. 우리시는 당초 GCF에 약속했던 대로 상주인원이 500명까지 늘어나는 2020년에는 직원 규모를 고려해 8개층을 추가로 확충해 모두 15개층의 사무공간을 제공한다.

GCF사무국 출범에 앞서 이날 세계은행(World Bank)사무실 개소식이 오전 9시에 열린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25명 이내로 포스코 E&C건물 37층을 임대해 사용한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우선 이날 임시로 문을 연 후 내년 초 정식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기금을 활용, 아시아 빈곤국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게 된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 GGGI도 이날 오후 5시 30분께 G타워에서 문을 연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당초 계획대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송도국제도시에는 소규모의 인원이 상주하는 지역사무소 형태로 운영된다. 글로벌녹색성장기구는 G타워 23층 1개층을 사용한다.



외국인 불편없도록 다양한 정주 지원

우리시는 GCF, 세계은행, 글로벌녹색성장기구 등의 국제기구 출범으로 송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들의 안정적인 정주지원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12월부터 입주하는 GCF사무국 직원들을 위해 인천경제청에서 운영하는 글로벌센터 기능을 확대한다. 글로벌센터는 외국인들이 인천에서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그들의 애로사항인 교육, 주택구입, 은행 및 보험처리, 자동차구매, 교통문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관련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한다. 글로벌센터는 영어가 가능한 공인된 주요 부동산, 보험, 전화기 업체 등의 명단을 리스트업 하고 있다. 또 의료관광재단은 영어 소통이 가능한 간호사를 글로벌센터로 파견하여 외국인들의 병원 이용을 도울 계획이다.

GCF사무국 출범으로 인천은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이끄는 도시가 됐다. 전 세계인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도시로 인천을 떠올리게 됐다. GCF와 연계한 녹색금융, 서비스산업, 환경산업의 투자유치가 활성화되어 인천경제에도 훈풍이 기대된다. GCF는 인천을 빛낼 또다른 보물이다.



GCF 사무국 출범 일지

2012. 2.22	GCF 유치 후보도시로 지명
2012. 3. 5	GCF 유치 후보도시 신청서 제출
2012. 3. 13	유치제안 설명회, 국내 유치도시로 인천시 확정
2012. 4. 15	GCF 정부 유치신청서 제출 (신청국가 한국, 독일, 스위스, 멕시코, 폴란드, 나미비아)
2012. 8.23~25	정부대표단 GCF 1차 이사회 참가(스위스 제네바)
2012. 9.16~18	GCF 유치국 평가위원회 개최
2012. 10.18~20	GCF 2차 이사회 개최(인천 송도) GCF 사무국 유치도시로 대한민국 인천 선정
2012. 11.12~12.7	제1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카타르 도하) GCF 사무국 인천송도 유치, 이사회 결정 환영·인준
2013. 3.15~15	GCF 3차 이사회 개최, 본부협정(안)승인, 제4차 이사회 개최(독일 베를린)
2013. 6.25~28	GCF 4차 이사회 개최, 사무총장 선출(헬라 쉬흐로흐)
2013. 8.19~22	헬라 쉬흐로흐 GCF 사무총장 방인
2013.9.10~12	UN 기후변화협약(UNFCCC)장기재원 워크숍 개최
2013. 10.7~10	GCF 제5차 이사회
2013. 12. 4	GCF 사무국 출범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겨울, 공항에서

봄을 여행하다

일상과 일탈 사이 뜨거운 안녕. 누군가를 기다리는 설렘으로 빨갛게 달아오른 뺨. 그리웠던 이와와 깊은 포옹, 그의 품이 닿았을 때의 포근함. 공항에는 겨울의 빗장을 여는 봄 햇살 같은 따사로움이 있다. 세찬 바람 쐬는 겨울 한가운데를 지나 다다른 공항, 그 안은 지금 따스한 봄날이다.

글 정경숙 본지면집위원 사진 정정호 자유사진가



문화 향기 가득한, 밀레니엄 홀

하늘과 땅을 수차례 오르내리는 비행기와 그 안에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공항은 이 모든 것을 마중하고 배웅하며 한가슴에 다 품는다. 공항은 단순히 여행의 출발점이자 마침표가 아닌, 또 하나의 여정. 굳이 여권을 챙겨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여행을 떠난 듯 즐겁고 설레는 ‘즐거찾기’ 명소가 곳곳에 있다.

여객터미널 1층 중앙에 있는 ‘밀레니엄 홀’은 사진 한 장으로 공항 나들이를 추억하기 좋은 장소다.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전구로 주변을 아름답게 장식해 연말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하늘 높이 솟은 소나무와 그 아래 계절별 예쁜 식물들이 자라는 ‘소

나무정원’은 보기만 해도 싱그럽다. 바로 옆 밀레니엄 홀 무대에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마련한 문화공연 ‘문화와 하늘을 잇다’가 1년 365일 열린다. 12월에는 뮤지컬, 상송, 캐럴 등 따사로운 공연을 열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무르익게 한다. 공연은 오후 3시 30분부터 한 시간 간격으로 4시 30분, 5시 30분 모두 세 번에 걸쳐 펼쳐진다.



여객터미널 Hot Spot

세계음식이 한자리에, 푸드 온 에어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세계를 맛볼 수 있다. 방송국 스튜디오 콘셉트의 식당에서 한국, 일본, 이탈리아, 베트남, 태국 등 7개국의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열린 주방에서 요리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특별한 재미.

위치 : 여객터미널 지하1층 중앙 서편 영업시간 : 08:00~20:00
문의 : 743-7049

한겨울 휴식, 스파 온 에어 추운 겨울, 훌쩍 온천여행을 떠나고 싶지만 바쁜 일상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스파가 답이다. 따스한 욕조에 몸을 누면 혈관 곳곳에 평온한 기운이 스미고 피곤이 눈 녹듯 사라진다. 수면실과 라운지 등을 갖춘 호텔 수준의 스파로, 전문가의 숙련된 손길로 트리트먼트 케어를 받을 수 있다.

위치 : 여객터미널 지하 1층 동편 영업시간 : 24시간
문의 : 743-7042



비행기가 보이는 풍경, 한국문화거리

최첨단을 달리는 공항에서 시간을 거슬러 만나는 전통문화는 색다른 경험이다. 여객터미널 4층에는 한국 전통문화의 기품 있고 고아한 멋이 흐르는 ‘한국문화거리’가 있다. 봄비는 차와 사람들로 소란스러운 도시를 떠나 공항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세상이다.

제일 먼저 발길이 이르는 곳은 ‘바깥마당’이다. 공항 여객터미널이 한눈에 보이는 정자 안에서, 풍류를 즐기던 선인들처럼 잠시 마음에 여유를 드리운다. 대문 건너 ‘사랑마당’으로 가면 한국의 자연과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담은 인터랙티브 디지털 체험관이 시야에 들어온다. 그 앞에서 천진하게 뛰노는 아이들의 실루엣이 더해져 더없이 아름다운 영상이 펼쳐진다. ‘들마당’에서는 한국의 멋과 여유가 서려 있는 조경을 감상할 수 있고, ‘안마당’에서는 누각에 앉아 활주로 위로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바라보며 여행의 설렘을 대신할 수 있다. 곁에서는 국악 실내악 연주회와 왕가의 산책 시현 등 전통문화 행사가 열려 즐거움을 더 한다. 연주회는 매일 오후 12시, 1시, 2시 30분에 왕가의 산책은 오후 3시에 열린다.



한국문화거리 Hot Spot

전망 좋은, 패밀리 레스토랑 특별한 외식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원하게 펼쳐진 활주로 위 뜨고 내리는 비행기를 보며 즐기는 근사한 저녁식사는 어떤가. 신선한 식재료로 재료 고유의 맛을 살려 요리한 홈 메이드 메뉴로 미각 또한 충족시킨다.

위치 : 여객터미널 4층 중앙
영업시간 : 07:00~20:00 문의 : 743-6500

한국 속, 유럽식 베이커리 매일매일 신선한 빵을 제공하는 유럽 정통 베이커리. 빵과 함께 유기농 커피, 음료 등을 즐길 수 있다. 유럽식 베이커리이지만 나무로 된 테이블과 전통문양이 새겨진 소품 등은 한국 고유의 정취를 자아낸다.

위치 : 여객터미널 4층 전망누각
영업시간 : 06:30~21:00 문의 : 743-8204

한류스타숍 에브리싱 한국스타에 열광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면 한번쯤 꼭 들르는 곳이다. 주로 중국과 일본에서 온 외국인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다.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즐거찾기’ 명소로 알려져 일부러 공항철도를 타고 먼 발걸음을 하기도 한다.

위치 : 여객터미널 4층 중앙 영업시간 : 06:30~21:00
문의 : 743-9850

공항철도 타고 인천국제공항 가기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역까지 공항철도를 타고 가면 편하고 빠르다. 직통열차로 가면 43분이 소요되며, 요금은 어른 8천원, 어린이 6천900원. 일반열차를 타면 53분이 걸리고, 요금은 어른이 3천850원, 어린이는 어른의 50%가 든다.

코레일 1599-7788, www.korail.com





한국문화의 거리, 인터랙티브 디지털 체험관



밀레니엄 홀, 소나무 정원



오감이 짜릿한 쇼핑천국, 교통센터

바다 건너 여행을 하지 않고 누군가를 마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공항에 가는 이유. 바로 교통센터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레스토랑과 카페, 영화관 등을 갖춘 쇼핑센터가 있어 즐겁게 한나절을 보내기 충분하다. 이미 영종도 주민들에게는 주말나들이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공항철도를 타고 많은 이들이 찾고 있다.

센터 한가운데 있는 아이스 포레스트는, 얼음이 아닌 특수 플라스틱으로 만든 사계절 스케이트장이다. 사람들은 새하얀 은반 위에서 함께 웃고 또 넘어지면 서로 일으켜 주며 도타운 정을 나눈다. 바로 옆에는 미니플렉스 영화관이 있다. 입구에 유명 영화 배우와 감독들의 핸드프린트와 영화포스터가 전시돼 있어, 이를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한류 팬들도 많다. 간혹 공항에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마친 연예인들이 찾기도 한다니, 운이 좋으면 브라운관에서 보던 스타를 눈앞에서 마주할 수도.

교통센터는 공항철도를 타면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다. 서울역을 출발해 인천공항역까지 단 50여 분 걸리며, 역에서 내리면 바로 교통센터다. 자가용을 타고 왔다면 C구역에 주차하는 것이 가장 가깝다. 3번 출입구로 들어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된다.

교통센터 Hot Spot

사계절 스케이트장 아이스 포레스트 한겨울 낭만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곳이 아이스링크. 공항 내 사계절 스케이트장이 들어선 곳은 인천국제공항이 최초다. 스케이트장은 6세 이상 이용할 수 있으며, 어린아이는 보호자와 함께 입장해야 한다. 링크 안 무대에서 비보이(B-boy), 재즈연주 등 다채로운 공연이 열려 한겨울의 낭만을 더 한다.

위치 : 교통센터 중앙 영업시간 : 10:00~20:00
입장료 : 무료(스케이트 대여료 성인 4천원, 청소년 3천원, 어린이 2천원)
문의 : 743-7087

미니플렉스 영화관 두 개의 상영관에 총 254석 규모로 아담하지만, 상영관 1관에선 3D, 2관에선 4Way 입체음향을 즐길 수 있다.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만큼 캐리어를 곁에 두도록 좌석간의 간격을 넓게 설계해, 편안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주차는 영화티켓을 내고 주차권을 구입하면 3시간에 1천원 그 이후는 1시간 당 2천4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위치 : 교통센터 중앙 영업시간 : 9:00~23:00
문의 : 1544-1122



세계 정상에 오른 12년
더 높이 비상할 20년

올해로 개항 12주년을 맞은 인천국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8년 연속 1위에 빛나는 국제공항이다. 여기에 국제화물 운송 세계 2위, 국제여객운송 세계 10위 등 물류시설과 서비스에서 단연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한다. 인천국제공항이 지난 9월 26일 제2여객터미널 기공식을 갖고 3단계 건설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인천공항은 지난 2001년 3월 29일 1단계 건설사업을 완료하고 성공적으로 개항한 후, 2008년 6월 탑승동과 제3활주로 등을 증설하는 2단계 건설사업을 준공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주변국과의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3단계 건설사업을 2009년부터 준비해 2017년까지 완벽하게 준공할 계획이다. 3단계 건설 사업은 연간 1천8백만명의 여객수요를 처리하는 제2여객터미널과 56개의 여객계류장, 철도역사와 버스승차장 및 주차장을 갖춘 제2교통센터, 무인여객수송열차(AT), 42km에 달하는 수하물처리시스템(BHS), 공항철도(8.5km) 및 진입도로 등을 비롯해 총 28개 시설, 45개동의 부대건물을 건설하는 초대형 규모의 사업이다.

문의 : 인천국제공항 1577-2600





한 올 한 올 인생을 엮은

추억의 공간

찬 바람이 불고, 차가운 기운이 몸 속을 파고드는 겨울이 오면 따뜻함이 간절해진다. 겨울에 생각나는 따뜻한 것들 중 으뜸은 복슬복슬 털실로 짠 목도리, 장갑, 양말, 모자다. 옷감이 귀한 시절엔 털실로 조끼, 스웨터를 떠서 입었고 지금은 패션 리더들의 액세서리인 코디용품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털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사랑과 따듯함의 대명사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조병석 자유사진가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1962년 송현동에 첫 간판 달고 영업

인천 털실가게하면 송현모사다. 1962년 송현동에 간판을 내건 이후 털실을 사러 인천 시민들은 송현모사로 갔다. 이곳에 오면 없는 실이 없고, 빗깍곱고 예쁜 털실이 가득했다. 가게 주인은 신춘심(87) 할머니다. 17살 어린나이에 황해도 사리원에서 피난을 나와 송현동에 정착한 신 할머니는 뜨개질 솜씨가 좋았다. 7세때부터 시작한 손뜨개질은 못 뜨는 옷이 없을 정도였고, 옷본을 보면 그대로 재현할 정도로 탁월했다. 집에서 실도 팔고 의뢰받은 털옷들을 떠주면서 할머니는 그 동네의 재주꾼이 됐다. 가내수공업으로 시작한 일이 잘되고 돈도 모아자 송현동 중앙시장에 가게를 얻었다. 그때가 1962년이다. 당시 중앙시장안에는 이미 털실가게가 서너 개가 있었다.

신 할머니는 가게를 열면서 서울의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털실가게처럼 이름있고 잘 되는 가게를 갖고 싶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50년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할머니는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상관없이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12시까지 일을 했다. 송현모사가 잘 되면서 주변에 손뜨개 가게들이 하나 둘 생겼다. 송현모사를 중심으로 한때 10여 개 가까운 털실가게들이 웅기중기 붙어있었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사람들은 기억속에서 그 거리를 추억할 뿐이다.



“그때는 먹고 살게 없어서 열심히 뜨개질하고 실 팔면서 살았어.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누구의 도움도 없이 장사한 거지. 뭐든지 열심히 하면 살게 되었어.”

50년을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 쉼 없이 일해

신 할머니는 털실가게를 운영하면서 아들 셋에 딸 하나를 남부럽지 않게 키웠다. 가게가 너무 잘돼 정신없이 장사를 했던 행복한 시절이었다. 겨울이 되면 손님들이 물밀 듯이 들어와 발디딤틈이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11월부터 1월까지가 털실가게의 대목이다. 할머니는 장사가 잘되니까 힘든줄 모르고 쉼 없이 일했다.

어스름한 새벽에 나와 혼자 물건을 정리하고 가게를 예쁘게 꾸밀 술, 조끼, 모자, 목도리를 떠서 사람의 눈길을 끌도록 꾸며 놓곤 했다.

할머니와 달리 장사 기질이 없던 할아버지는 집안을 챙기는 일을 맡았다. 부부가 역할을 나눠 집안을 책임졌다. 할머니가 청춘과 젊음을

바쳐 일했던 송현동 가게는 5년 전 헐렸다. 송현동이 재개발 되면서 그 자리에 동인천역 북광장이 조성됐다. 송현모사는 현재 신평시장 뒷골목에 자리한다.

송현모사가 이곳으로 옮겨온 뒤 죽어있던 이 골목이 활기를 되찾았다. 사람의 발길이 뜸 했던 뒷골목이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50년 전 송현동처럼 근방에 털실가게가 두어개 새로 문을 열었다. 할머니는 가게가 잘되는 이유가 물건 가짓수가 많고 가격이 저렴한 것 때문으로 분석한다.

신춘심 할머니도 세월은 비껴가지 못했다. 고령에도 건강을 자신했지만 최근 노환으로 병원신세를 졌다. 세월엔 장사가 없다. 세월은 할머니 뿐만 아니라 단골손님들의 연령도 높였다. 중·고등학교 시절 해맑은 모습으로 이 가게를 드나들었던 소녀들은 이제는 다 할머니 손님이 됐다. 손님과 주인이 함께 나이를 먹어가며 할 얘기가 많은 가게가 됐다.

사람의 마음을 담은 이야기가 흘러

할머니는 최근 가게 운영을 아들과 딸에게 물려주고 '충감독'이 되어 뒷자리로 물러났다.

그래도 자신의 인생의 뼈를 묻은 가게에 매일 나와 손님들과 인사하고 가게를 돌본다. 손님들도 집에서 떠온 손뜨개를 보여주면서 어떠냐고 물어보고 할머니는 “잘 떴어”하고 칭찬하면서 정을 쌓는다. 여기서 털실을 사면 기본적인 손뜨개 방법을 알려준다.

12월부터 1월까지의 가게가 가장 바쁜 시기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12월에는 목도리실이 잘 나간다. 요즘도 털실로 모자, 워머, 수세미 등을 뜨는 사람들이 많다. 정성과 사랑을 담아 뜬 손뜨개를 선물하려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털실은 예나 지금이나 사랑의 온기를 전하는 물건이다. 그래서 송현모사는 한올 한올 인생을 엮는 추억의 공간이 되고 있다.



손뜨개로 봉사하는 사람들



행복을 뜨는 사람들

손효숙씨는 손뜨개 강사다. 인천여성가족재단, 서부여성회관, 화도진복지관에서 목도리, 장갑, 양말 등 털실로 할 수 있는 손뜨개 방법을 강의한다. 손씨도 강사활동을 위해 손뜨개 공부를 13년간 했다. 그녀는 6년 전부터 '행복을 뜨는 사람들'이라는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손뜨개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동아리는 처음 5명으로 시작해 지금 1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회원들이 자비를 들여 실을 사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소외계층을 위해 목도리, 장갑, 양말을 뜬다. 그간 뜬 작품들은 매년 전시회도 열고, 수세미 등의 소품도 판매해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쓴다. 회원들이 뜬 목도리, 장갑, 모자 등은 독거노인, 미혼모, 영아 시설 등에 기부한다. 올해는 모자 50개를 떠서 어린이집에 보낸다. 손씨는 사랑과 정성을 담아 뜬 목도리, 모자가 정말 필요한 곳에 전달되어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핸드&핸드 포그니 손뜨개방

남구자원봉사센터가 운영하는 손뜨개 자원봉사 모임인 '핸드&핸드 포그니 손뜨개방'은 회원들이 직접 뜬 목도리, 모자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사랑의 모임이다. 2010년부터 시작해 봉사자들이 자비를 들여 실을 사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사랑과 정성을 담아 뜨개질을 한다. 모임은 손뜨개 자원봉사자 대략 200여 명과 손뜨개질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핸드&핸드 포그니 손뜨개방이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노인시설에 계신 어르신들이 병원에 갈 때 머리에 쓸 모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으면서다. 작년까지 4년간 모자, 목도리만 1천217개를 떠서 전달했다. 장애인, 노숙자, 노인들은 아무도 자신들에게 관심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전달받은 선물에 다들 따뜻한 감동을 느낀다. 포그니 손뜨개방은 올해도 봉사자들이 정성 가득 뜬 털실 목도리를 이달 17일에 전달한다. 목도리와 모자는 예쁜 종이 손가방에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 포장되어 노인시설과 보육원에 보내진다.





감동의 크리스마스,

공연으로 느낀다!

12월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빠지면 뭔가 허전하다. 흥겨운 캐롤도 들리고 빨강고, 파란 크리스마스 장식도 눈에 띄어야 겨울의 한복판에 와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추운 날씨를 따뜻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 채워줄 반짝반짝 빛나는 공연이 올 12월에도 가득하다.

글 김윤경 I-View 편집위원

보니푸에리의 크리스마스 콘서트

일시 : 12월 25일(수) 오후 4시
장소 : 인천서구문화회관
티켓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의 : 580-1155

세계적인 소년합창단 보니푸에리

마치 천사들의 합창을 듣는 듯 평화로운 분위기가 온몸을 감싼다. 마음까지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 밝고 고운 선율이 무대 가득 채워진다.

천상의 목소리로 세계를 감동시키는 유럽 최고의 소년합창단 보니푸에리가 드디어 인천관객을 찾아온다. 보니푸에리(Boni Pueri)는 라틴어로 '착한 소년들(Good boys)'이라는 뜻으로 1982년 창단된 체코의 대표 합창단이다.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합창단 중 하나로 북미, 유럽, 아시아를 아울러 2천500회 이상의 콘서트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13장의 정규앨범이 발표되었고, 세계 굴지의 음악사인 'EMI', 'BMG', 'Supraphon', 'Arco Diva' 등과 20여 장의 컴필레이션 음반 작업을 함께하면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이 밖에도 저명한 성악가 '호세 카레라스(Jose Carreras)', 그래미상 수상자인 '바비 맥퍼린(Bobby McFerrin)'과의 협연과 다수 TV, 라디오 방송출연을 통해 세계적으로 그 입지를 굳혔다. 이러한 활동들을 바탕으로 2006년 체코의 교육부로부터 후원을 받아 350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사립음악학교 '보니푸에리'가 설립되었으며, 체코의 문화대사로 활동하며 세계 유수의 음악축제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 특히, 바티칸 로마교황청 초청공연에서 교황의 찬사를 받기도 했다.

이번 인천 공연은 클래식 음악의 소프라노와 가수의 가곡메들리, 캐럴과 뮤지컬 음악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이루어진다. 베를린 '화이트 크리스마스', 헨델의 할렐루야, 브로드웨이 뮤지컬 메들리, 모리코네의 벨라환타지아 등 한국의 관객들이 반가워할 곡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순수하고 맑은 체코 소년들의 목소리로 듣는 김현철의 '크리스마스에는 축복을'이 공연의 백미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소프라노 강혜정과 가수 유열, W필 오케스트라가 특별 출연해 소년들의 미성과 함께 어우러져 더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2천년 전 베들레헴으로의 시간여행

밝고 깨끗한 음색과 마음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음악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그라시아스합창단'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가지고 겨울 분위기를 한층 북돋운다.

그라시아스합창단은 2000년 창단 이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 오스트리아 아이젠슈타트 하이든홀 등 세계적인 무대에 올랐고, 매년 40여 개 국가에서 100회 이상의 공연을 갖고 있다.

크리스마스 칸타타 1막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주제로 한 오페라를, 2막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참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가족 뮤지컬을 선보인다. 3막은 크리스마스 캐롤을 베이스로 가족의 훈훈한 사랑을 노래하면서 바로크 음악의 거장인 헨델의 명곡 '메시아' 가운데 '할렐루야'로 마무리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음악원 교수이자 러시아 공훈 예술가 보리스 아발랴(Boris Abalyha)이 지휘를 맡는다. 보리스 아발랴는 전 세계 유수의 합창 콩쿠르에서 심사위원을 맡는 등 세계 최고의 합창 지휘자로 유명하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칸타타'

일시 : 12월 23일(수) 오후 3시 30분, 7시 30분
장소 : 한국뉴욕주립대학교 대강당
티켓 : VIP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4만원
문의 : 1899-2199



매년 기다려지는 '호두까기 인형'

해마다 이맘쯤이면 으레 전국 각지의 공연장을 점령하는 공연이 있다. 바로 차이콥스키의 발레 '호두까기 인형'이다. 발레의 배경이 크리스마스라는 점, 동화적인 분위기로 누구나 즐거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차이콥스키 특유의 선율미가 심분 발휘되었다는 점 등이 이 작품을 연말공연의 단골 레퍼토리로 만들었다.

특히, 이번 겨울엔 각각 발레와 뮤지컬로 다양한 '호두까기 인형'을 만나볼 수 있다. 가족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은 19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과 24일, 2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펼쳐지고, 28일 서구문화회관에서는 '호두까기 인형'이 발레로 무대에 오른다. 빠트리면 뭔가 허전하고 아쉬운, '호두까기 인형'은 올겨울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대로 만끽할 수 있는 공연이 될 것이다.



가족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일시 : 12월 19일(목) 오전 10시 20분, 11시 20분
장소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씨리재홀
티켓 : 일반 6천원, 학생 무료
문의 : 760-3457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일시 : 12월 24일(화)~25일(수)
24일 오후 2시, 4시, 7시
2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3만원
문의 : 010-2946-4412

2013 판타지 발레전막 '호두까기 인형'

일시 : 12월 28일(토) 오후 2시, 5시
장소 : 서구문화회관 대공연장
티켓 : R석 2만5천원, S석 2만원, A석 1만5천원, 문화회원 50% 할인
문의 : 580-1155

아이들 위한 아름다운 겨울이야기



하얀 눈의 나라, 요정과 눈사람 아저씨가 펼치는 화려한 마법의 세계, 유쾌한 스토리와 경쾌한 음악으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판타스틱 스노우맨'이 즐거운 상상의 세계로 아이들을 초대한다. 멋지고 다정한 스노우맨 아저씨가 내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과 학관에서 즐겁고 흥겨운 추억을 가득 선물한다. 또 욕심쟁이 스쿠르지 영감의 이야기를 통해 크리스마스의 따뜻한 감동을 전해주는 '크리스마스 캐롤'이 레미어린극장에서 15일까지 매일매일 펼쳐지고,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루돌프 사슴들의 깔깔거리는 흥겨운 웃음이 무대 가득 넘치는 어린이 뮤지컬 '루돌프와 산타클로스'가 7일과 8일 신세계백화점 문화홀에서 선보인다.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겨울 녹이는 따뜻한 공연을 선물하세요

진정한 공연의 계절인 겨울이 돌아왔다. 이번 겨울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을 고려한 공연이 준비되어 가슴 설렌다. 커플들은 연인과 함께 보낼 로맨틱한 공연을, 친구들과는 한 해를 정리할 수 있는 유쾌한 공연을, 가족들과는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세대공감 공연을 선택해보자.

글 김윤경 I-View 편집위원

FANTASY FOR TWO

CLARA-JUMI KANG & YEOL EUM SON

모든 연령대 관람 가능

부평아트센터

13(금) 오후 8시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부평아트센터 (전) 40,000원 / (후) 30,000원 / 시애틀에서 15,000원

1,544-1555 부평아트센터 (문의) 032-506-2900 www.ipart.or.kr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뮤지컬 '비밥'

잔잔한 클래식으로 차분하게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울림을 느낄 수 있는 클래식 공연은 연말 분위기의 낭만을 더해준다. 이름만으로 음악계가 들썩거렸던, 세계 클래식계에서 인정받는 자랑스러운 젊은 한국 연주자인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과 피아니스트 손열음이 이번 겨울엔 인천을 찾아온다. 13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 극장에서 펼쳐지는 이들의 공연은 〈판타지 포 투 Fantasy for Two〉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바이올린과 피아노의 절묘한 앙상블이 슈베르트와 후바이의 두 환상곡과 모차르트, 프로코피예프의 소나타 등 다양한 색채를 유감없이 발휘한다.

즐겁고 신나는 뮤지컬
박수치고, 웃고, 몸을 흔들며 흥겨움에 빠져들 수 있는 뮤지컬이 연말 스트레스를 날려준다. 트렌디한 무대 세트와 매 시즌 핫한 스타 캐스팅으로 공연할 때마다 언론과 관객의 관심을 모았던 뮤지컬 〈싱글즈〉가 20일과 21일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에서 선보인다. 남녀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공감대 형성 200%의 스토리가 매력포인트인 〈싱글즈〉는 2030세대라면 누구나 그 시기에 겪게 되는 시련과 방황, 사랑과 결혼에 대해 여태껏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사정을 리얼하고 흥미진진하게 표현해 관객들은 마치 현실 속의 자신을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지게 된다. 또 24일과 2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는 두 요리사가 각국의 음식으로 대결을 펼치다 한국의 비빔밥 만들기로 절대 승부를 가린다는 내용을 담은 뮤지컬 '비밥'이 펼쳐진다. 〈난타〉, 〈점프〉 등 한국 난버블



뮤지컬 '구텐버그'

퍼포먼스의 역사가 되는 작품들을 연출했던 최철기 감독이 제작하고, 〈점프〉, 〈브레이크아웃〉의 전준범이 연출로 나선 뮤지컬 '비밥'에서는 현란한 테크닉을 자랑하는 비트박스를 맘껏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14일, 1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신선함과 재미, 거기에 감동까지 맛볼 수 있는 뮤지컬 '구텐버그'가 준비돼 있다.

아이들을 위한 풍성한 공연
이번 연말에는 유독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 가득하다. 먼저, 제이콥스 원작의 〈아기돼지 삼형제의 신나는 이야기〉가 27일과 2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펼쳐진다. 재치와 용기를 발휘해 어려움을 이겨내며 아



이들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내용을 공연 내내 유쾌하게 풀어낸다. 또 14일에는 최고의 에듀테인먼트 〈픽처플레이 구름빵〉이 인천 중구문화회관에서 펼쳐진다.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그림자들과 구름빵 인형, 동화 속을 구현한 무대 등 다양한 시각적 효과들을 통해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나쁜 생활 태도, 버릇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는 기발한 상상력의 어린이 뮤지컬 '콧구멍을 후비면'은 20일과 21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동화콘서트 '상상노리 별주부전'은 22일부터 25일까지 계양문화회관에서 선보인다.

취향대로 골라보는 콘서트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 부드러운 발라드, 신나게 발을 구르며 떴창이 가능한 무대까지... 숨겨진 감성을 콕콕 자극하는 콘서트가 연달아 열린다. 먼저, 삼산월드체육관에서는 12월 1일 가왕 조용필 콘서트를 시작으로 14일 이승철 콘서트, 25일 슈퍼스타K4 탑 12 콘서트가 펼쳐진



다. 특히, 21일에는 춤으로 대한민국을 평정할 춤꾼들의 에너지가 가득한 '댄싱9 갈라쇼'가 최고의 댄서들이 펼치는 땀과 열정의 꿈의 무대를 선사한다. 또 15일 이우마 콘서트, 28일 자전거 탄 풍경 콘서트가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부평아트센터에서는 25일 이미지, 27일 김창완 밴드의 콘서트가 이어진다. 28일 계양문화회관에서는 동물원 콘서트가 준비돼 있다.

인천시립합창단 정기공연 〈별을 사랑한 미르〉

인천시립합창단이 따뜻한 목소리와 아름다운 화음으로 깊어가는 겨울밤을 수놓는다. 매해 크리스마스 시즌이면 〈Love Christmas〉, 〈Amazing Christmas〉, 〈쑥덕쑥덕 Christmas〉, 〈위대한 선물〉 등 재미와 감동의 뮤지컬로 관객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던 인천시립합창단이 또 하나의 합창 뮤지컬을 준비했다. 이번에 선보일 작품은 조성은 작곡가의 〈별을 사랑한 미르〉. 별을 관찰하는 3명의 동방박사와 실수로 발을 헛디더 땅으로 떨어진 '별'미르가 베들레헴까지 가는 동안의 여정이 천상의 화음과 함께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일시 : 12월 17일(화) 오후 7시 30분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전석 1만원
문의 : 엔티켓 1588-2341



인천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베르디를 추억하며 II〉

인천시립교향악단이 탄생 200주기를 맞은 대음악가 베르디의 위대한 유산을 노래하며 그를 기억하는 기념음악회를 마련했다. 이번 연주는 금난새 예술감독의 지휘로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 〈나부코〉, 〈운명의 힘〉 등 그의 대표작에 녹아있는 아름다운 아리아를 감상하는 갈라콘서트 형식으로 꾸며진다. 2013년 베르디 국제 성악 콩쿠르 3위에 빛나는 소프라노 홍주영,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극장에서 활동 중인 테너 정호윤, 2012년 톨루즈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1위를 차지한 바리톤 김주택 등 한국 성악계의 별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일시 : 12월 18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문의 : 엔티켓 1588-2341



커피콘서트 X 〈재즈보컬리스트 말로가 노래하는 겨울〉

올해 마지막 커피콘서트에서는 스캣의 여왕, 한국 최고의 재즈보컬리스트 말로와 그녀의 밴드가 겨울을 노래한다. 세련된 재즈 어법과 순도 높은 한국어 가사, 그리고 말로의 독창적 보컬이 한국적 재즈의 진정한 풍경을 보여준다. 순식간에 관객들의 눈앞에 총천연색의 파노라마로 펼쳐 보이는, 자유분방하고 풍성하면서도 군더더기 없는 스캣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일시 : 12월 18일(수) 오후 2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티켓 : 전석 1만원
문의 : 엔티켓 1588-2341



인천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아라의 서〉

향해를 향해 열려있는 땅-인천을 넘나드는 바람 같은 사람들의 역동적인 추상을 춤으로 그려낸 인천시립무용단의 〈아라의 서(書)〉는 창세설화나 민담 속에 출현하는 강렬한 신화적 인물이 중심이 되어 바다에서 탄생한 문명과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무대 위에 펼쳐 보이는 한 편의 서사시와 같은 작품이다.

일시 : 12월 13일(금)~14일(토), 13일 오후 8시, 14일 오후 5시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티켓 : R석 1만원, S석 7천원
문의 : 엔티켓 1588-2341



Exhibition	~12월 5일	인천예술교 테마전(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다솜) / 제10회 인천광역시시각대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이달의展	~12월 5일	제3회 김재석 개인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제17회 인천광역시공예인협회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2월 3일~12월 8일	제7회 손국 윤석애 문인화전(인천학성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12월 6일~12월 12일	제14회 인천광역시 미술전람회 및 초대작가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전시실) / 제9회 김경배목판화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2월 10일 ~12월 21일	원목회 -4人行展(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 이원숙 서예전(인천평생학습관 갤러리 나무, 다솜)
	12월 13일~12월 19일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기획작품전시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전시실) / 제4회현대조형예술협회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12월 13일~12월 19일	라이온스포토팀 창립회원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 인천수채화아카데미 "도약"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2월 17일~12월 22일	인천미술의 어제와 오늘(인천학성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12월 20일~12월 22일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사료전시회(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중앙전시실) / 휠체어를 끄는 루돌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12월 20일~12월 26일	선재 백재욱 개인전(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미추홀실)
	12월 21일~12월 31일	이상봉 사진전 "잠상(潛像)"(남동문화예술회관 갤러리 화·소)
	12월 26일~2014년 1월 5일	2013년 초·중등예술영재합동발표회(인천학성교육문화회관 가운갤러리)

SUN 1	MON 2	TUE 3	WEN 4	THU 5	FRI 6	SAT 7
EBS 고마버스 (타오) "슈퍼버스의 탄생"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전 11시, 오후 2시, 4시30분 R석 4만5천원, S석 3만5천원 ☎창라이프 1566-6551 인천시립극단 제66회 정기공연(리어왕)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3시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 ☎인천시립극단 1588-2341	12 CALENDAR PERFORMANCE	12.13~14 뮤지컬 〈구텐버그〉 디지털창작 영어뮤지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시30분, 4시30분 / 무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032-250-2171 어린이음악극 '스토리 오브 바하 시존2'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3천원 ☎032-505-5995 희망나눔 콘서트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대공연장) 지내8시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5천원 ☎032-453-5713	디지털창작 영어뮤지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시30분, 4시30분 / 무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032-250-2171 어린이음악극 '스토리 오브 바하 시존2'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3천원 ☎032-505-5995 희망나눔 콘서트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대공연장) 지내8시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5천원 ☎032-453-5713	디지털창작 영어뮤지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시30분, 4시30분 / 무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032-250-2171 어린이음악극 '스토리 오브 바하 시존2'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3천원 ☎032-505-5995 희망나눔 콘서트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대공연장) 지내8시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5천원 ☎032-453-5713	디지털창작 영어뮤지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1시30분, 4시30분 / 무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032-250-2171 어린이음악극 '스토리 오브 바하 시존2'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3천원 ☎032-505-5995 희망나눔 콘서트 남동문화예술회관 소래극장(대공연장) 지내8시 일반 1만5천원, 청소년 1만원, 어린이 5천원 ☎032-453-5713	AZOOMA 밴드와 놀자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VIP석 8만8천원 R석 7만7천원, S석 5만5천원 ☎경기신문 032-223-5500 디지털창작 영어뮤지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오후 1시30분, 4시30분 무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032-250-2171
디지털창작 영어뮤지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오후 1시30분, 4시30분 무료 ☎인천정보산업진흥원 032-250-2171	가족뮤지컬 〈황금알을 낳는 오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4시 전석 1만5천원 ☎교육극단 상상 010-6757-1948	가족뮤지컬 〈황금알을 낳는 오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40분 전석 1만5천원 ☎교육극단 상상 010-6757-1948 환경연극 '흠이 들려주는 이야기'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3천원 ☎플레이치치 032-505-5995 한울소리 타악콘서트 '유쾌한 드러머' 계양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30분 / 무료 ☎032-551-6602~3	가족뮤지컬 〈황금알을 낳는 오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40분 전석 1만5천원 ☎교육극단 상상 010-6757-1948 환경연극 '흠이 들려주는 이야기'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3천원 ☎플레이치치 032-505-5995 한울소리 타악콘서트 '유쾌한 드러머' 계양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30분 / 무료 ☎032-551-6602~3	가족뮤지컬 〈황금알을 낳는 오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40분 전석 1만5천원 ☎교육극단 상상 010-6757-1948 환경연극 '흠이 들려주는 이야기'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3천원 ☎플레이치치 032-505-5995 한울소리 타악콘서트 '유쾌한 드러머' 계양문화회관 대공연장 오전 10시 30분 / 무료 ☎032-551-6602~3	인천시립무용단 제77회 정기공연 〈아라의 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R석 1만원, S석 7천원 ☎인천시립무용단 1588-2341 환경연극 '흠이 들려주는 이야기'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3천원 ☎플레이치치 032-507-5996	인천시립무용단 제77회 정기공연 〈아라의 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8시 R석 1만원, S석 7천원 ☎인천시립무용단 1588-2341 환경연극 '흠이 들려주는 이야기' 부평문화사랑방 오후 7시 / 3천원 ☎플레이치치 032-507-5996
이루마르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VIP석 8만9천원, R석 6만6천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 뮤지컬 〈구텐버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쿵구멍을유해비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쿵구멍을유해비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쿵구멍을유해비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쿵구멍을유해비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쿵구멍을유해비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강바자 연극(친정엄마와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창라이프 1566-6551 뮤지컬 〈쿵구멍을유해비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11시20분 오후 2시 / 전석 2만원 ☎극단연티켓 032-818-5721 뮤지컬 〈싱글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3천원 ☎032-500-2000
이루마르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VIP석 8만9천원, R석 6만6천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 뮤지컬 〈구텐버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강바자 연극(친정엄마와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창라이프 1566-6551 뮤지컬 〈쿵구멍을유해비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11시20분 오후 2시 / 전석 2만원 ☎극단연티켓 032-818-5721 뮤지컬 〈싱글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3천원 ☎032-500-2000
이루마르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VIP석 8만9천원, R석 6만6천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 뮤지컬 〈구텐버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강바자 연극(친정엄마와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창라이프 1566-6551 뮤지컬 〈쿵구멍을유해비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11시20분 오후 2시 / 전석 2만원 ☎극단연티켓 032-818-5721 뮤지컬 〈싱글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3천원 ☎032-500-2000
이루마르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VIP석 8만9천원, R석 6만6천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 뮤지컬 〈구텐버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강바자 연극(친정엄마와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창라이프 1566-6551 뮤지컬 〈쿵구멍을유해비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11시20분 오후 2시 / 전석 2만원 ☎극단연티켓 032-818-5721 뮤지컬 〈싱글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3천원 ☎032-500-2000
이루마르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VIP석 8만9천원, R석 6만6천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 뮤지컬 〈구텐버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강바자 연극(친정엄마와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창라이프 1566-6551 뮤지컬 〈쿵구멍을유해비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11시20분 오후 2시 / 전석 2만원 ☎극단연티켓 032-818-5721 뮤지컬 〈싱글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3천원 ☎032-500-2000
이루마르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VIP석 8만9천원, R석 6만6천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 뮤지컬 〈구텐버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강바자 연극(친정엄마와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창라이프 1566-6551 뮤지컬 〈쿵구멍을유해비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11시20분 오후 2시 / 전석 2만원 ☎극단연티켓 032-818-5721 뮤지컬 〈싱글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3천원 ☎032-500-2000
이루마르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VIP석 8만9천원, R석 6만6천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 뮤지컬 〈구텐버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강바자 연극(친정엄마와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창라이프 1566-6551 뮤지컬 〈쿵구멍을유해비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11시20분 오후 2시 / 전석 2만원 ☎극단연티켓 032-818-5721 뮤지컬 〈싱글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3천원 ☎032-500-2000
이루마르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VIP석 8만9천원, R석 6만6천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 뮤지컬 〈구텐버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강바자 연극(친정엄마와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창라이프 1566-6551 뮤지컬 〈쿵구멍을유해비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11시20분 오후 2시 / 전석 2만원 ☎극단연티켓 032-818-5721 뮤지컬 〈싱글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3천원 ☎032-500-2000
이루마르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VIP석 8만9천원, R석 6만6천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 뮤지컬 〈구텐버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강바자 연극(친정엄마와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창라이프 1566-6551 뮤지컬 〈쿵구멍을유해비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11시20분 오후 2시 / 전석 2만원 ☎극단연티켓 032-818-5721 뮤지컬 〈싱글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3천원 ☎032-500-2000
이루마르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VIP석 8만9천원, R석 6만6천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 뮤지컬 〈구텐버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강바자 연극(친정엄마와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창라이프 1566-6551 뮤지컬 〈쿵구멍을유해비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11시20분 오후 2시 / 전석 2만원 ☎극단연티켓 032-818-5721 뮤지컬 〈싱글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3천원 ☎032-500-2000
이루마르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VIP석 8만9천원, R석 6만6천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 뮤지컬 〈구텐버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강바자 연극(친정엄마와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창라이프 1566-6551 뮤지컬 〈쿵구멍을유해비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11시20분 오후 2시 / 전석 2만원 ☎극단연티켓 032-818-5721 뮤지컬 〈싱글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3천원 ☎032-500-2000
이루마르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VIP석 8만9천원, R석 6만6천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 뮤지컬 〈구텐버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강바자 연극(친정엄마와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창라이프 1566-6551 뮤지컬 〈쿵구멍을유해비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11시20분 오후 2시 / 전석 2만원 ☎극단연티켓 032-818-5721 뮤지컬 〈싱글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3천원 ☎032-500-2000
이루마르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VIP석 8만9천원, R석 6만6천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 뮤지컬 〈구텐버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강바자 연극(친정엄마와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창라이프 1566-6551 뮤지컬 〈쿵구멍을유해비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11시20분 오후 2시 / 전석 2만원 ☎극단연티켓 032-818-5721 뮤지컬 〈싱글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3천원 ☎032-500-2000
이루마르서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VIP석 8만9천원, R석 6만6천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1 뮤지컬 〈구텐버그〉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12.20~21 뮤지컬 〈싱글즈〉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후 2시, 6시 R석 5만원, S석 4만원 ☎극단유리가면 1544-390	강바자 연극(친정엄마와2박3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오후 3시, 7시 R석 7만7천원, S석 6만6천원 ☎창라이프 1566-6551 뮤지컬 〈쿵구멍을유해비만〉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오전 10시, 11시20분 오후 2시 / 전석 2만원 ☎극단연티켓 032-818-5721 뮤지컬 〈싱글즈〉 부평아트센터 해누리극장 오후 8시 / 3천원 ☎032-500-



QR코드를 찍으면
취재 동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지키는 ‘화이트 해커’

글 이용남 본지편집위원 사진 김보섭 자유사진가

뛰어난 컴퓨터 실력으로 기관이나 시설의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공격해 파괴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커다. 블랙 해커와 달리 화이트 해커는 순수하게 공부와 연구를 위해 선의의 목적으로 해킹을 하는 사람들이다. 블랙 해커들의 악의적인 침입을 막고, 기관들의 보안 취약점을 연구해 해킹방어 전략을 구상하고 조언한다. 해커를 막는 해커라 할 수 있다.

인하대생 이종호(22)군은 화이트 해커다. 학생이지만 라온시큐어라는 보안기술업체의 연구원으로도 활동한다. 얼마 전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착한해커대회’에 참가해 세계 1위를 거머쥐었다. 전 세계에서 출동한 해커 고수들과 겨룬 끝에 얻은 쾌거였다. 세계대회 우승 후 그는 청와대와 인천시에 청년대표로 초청되었다. 그 자리에서 불법적인 해킹을 막는 보안전문가의 양성이 청년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될 거라는 견해를 발표해 박수를 받았다.

이군은 컴퓨터를 전공한 아버지의 영향으로 5세 때부터 컴퓨터를 만지며 놀았고, 청소년 시절에는 자신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 숨씨를 뽐내기도 했다. 탁월한 컴퓨터 실력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때 이미 안철수연구소가 주최한 해킹방어대회에서 우승한 것을 비롯해 각 대학이 개최한 대회에서도 여러차례 상을 받았다. 대회 수상 경력은 대학입시에도 인정되어 인하대 컴퓨터공학과에 특이재능 보유자로 입학할 수 있었다.

“무슨 일이든 재미있고 즐겨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어야 빨리 배울 수 있고 무엇보다 즐기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의 전문분야는 웹해킹이다. 밥먹고,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컴퓨터와 함께한다. 밤을 새는 일도 다반사다.

이군은 화이트 해커와 보안전문가의 양성이 시급함을 강조한다. 얼마 전 청와대, 농협, 국민은행, 방송사 등 굴지의 기관들이 사이버테러를 당해 며칠동안 전산이 마비되어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이나 은행의 보안 시스템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했다.

그는 학업과 해킹연구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게 쉽지 않다. 강의, 외부자문이 많은데 수업과 겹치면 수업을 포기해야 하기에 성적이 좋지않다. 운동선수들은 대회에 나가면 출석이 인정되는데 반해 컴퓨터 분야는 아직 그런 제도가 정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킹공부를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다.

“어린 청소년들이 해킹분야에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지원도 많이 되어 이 분야가 그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봄날처럼
화사하고 황홀한

자춘걸

作春卷

글 김윤식 시인 사진 홍승훈 자유사진가

중구 신생동 9-12번지 중국 음식점 신성루(新盛樓)에는 추억이 서려 있다. 1963년 3월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이 집에서 이웃 여중학교 동기생들과 짜장면과 야끼만두에 그 독하기 이를 데 없는 백알까지 몇 잔 마셨기 때문이다. 겨우 중학교를 졸업하는 애송이 주제에 마치 인생 끝에 다다른 것처럼 기고만장해서 술을 마신 작태가 생각하면 할수록 부끄럽고 코웃음이 절로 난다.



돈 없는 연인들의 짜장면 데이트 공간

식장에서 받은 졸업 앨범과 졸업장을 말아 집어넣는 길고 둥근 통을 옆구리에 끼고 2월의 추위에 얼굴이 얼어붙은 채 신성루 문을 밀고 들어서던 생각이 아주 선연하다. 그 당시 중국인 주인이 아무 까탈 없이 교복 입은 우리들에게 술을 내주던 것도 참 용하게 생각되는데, 그에 한 술더 떠 우리를 골방 쪽으로 배려해준 것도 신기할 정도다.

하기야 당시는 사회 기강이 엄하고 고작 중학생을 면하는 풋 나부랭이들이 중국집에서 백알을 마신다는 것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시절이었으니 어찌다 이런 돌출(突出)들의 만용을 오히려 대견(?)하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당시는 오늘날처럼 주민증을 확인하고 어찌고 하는 일은 애초에 없고, 오히려 미성년자 스스로가 아예 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훗날 안 사실이지만 그때는 중국집이 젊고 가난한 데이트족들의 큰 의지처였다. 데이트를 하려면, 남녀 두 사람 분의 커피값과 식대 그리고 돌만이 있을 공간 비용이 필수인데 중국 음식점에서는 이것이 한꺼번에 해결되었던 것이다. 짜장면 두 그릇을 시키면 충분한 중국 엽차가 제공되고 적어도 1시간 가량은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온돌 골방에 안온하게 머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신성루가 그런 ‘고마운’ 명성을 많이 듣고 있었다. 중국인이지만 주인 영감이 참으로 너그러웠던 모양이다. 해서, 인천 모 고등학교 학생과 여학생의 모모한 이야기도 흔히 입에 오르내리고는 했다. 오늘날은 그때 그 방들의 크기와 구조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큰 형태는 대강 남아 있어 아련히 추억을 되살린다.

아차, 음식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너무 많이 흘렀다. 신성루에 관한 옛 생각이 두서없이 감정을 뽐게 한 까닭이리라.



오늘날은 청관(淸館), 곧 차이나타운 쪽이 대대적인 선전에 힘입어 청요리의 본고장처럼 되었지만, 그곳이 활기를 되찾기 이전부터 반세기 넘게 중구에서 요리 맛을 지켜온 곳들이 있다. 우선 신흥동 로터리의 신일반점, 초마면(짬뽕의 본명이다)이 좋은, 옛 신흥카바레 골목의 신동양, 중앙동의 진흥각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신성루가 그 집들이다.

그 외에 신흥로터리 서남쪽 모서리에 있던 해빈반점이 특히 음식을 푸짐하게 내 이름을 얻었었는데 도시 재건축으로 헐려 나가고 없다. 경동사거리 용풍루도 청요리 전통을 곳곳이 지켜왔지만 햄버거 집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씨체널인가 하는 안경점이 들어 성업 중이다.

중학 졸업 때 해프닝 말고, 그 후 신성루를 드나들게 된 것은 1980년대 초반부터로 직장을 그 근처로 잡은 까닭이다. 점심이면 주로 ‘유니짜장면’을 시켜 먹었다. ‘유니’는 ‘육니(肉泥)’의 중국 발음으로 돼지고기를 아주 ‘진홍탕처럼(?)’ 진하고 잘게 갈아 춘장과 볶는 것을 의미한다. ‘유모짜장면(肉末炸醬麵)’이라고도 하는데 다소 느끼한 듯한 여느 짜장면과 달리 아주 맛이 고소하고 별났다. 지금도 이따금 들러 이것을 주문한다.

해삼주스, 부드러운 맛에 노인들 보양식

옛날 신태범(愼兌範) 박사께서 종종 추천해 주시던 자춘결(作春卷)은 말 그대로 이 집 명물이다. 이것을 먹으려면 미리 주문을 하든지, 아니면 좀 한가한 시간에 가서 느긋하게 기다려야 한다. 웬만한 중국집에서는 시간이 걸려 메뉴에 잘 올리지 않는다고 한다.

자춘결은 우리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계란말이인데 알반대기 곧 계란 지단에 죽순, 해삼, 새우, 동구버섯, 양파, 부추 등등을 볶아 엮고 둘둘 말아 살짝 지진 뒤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놓는다. 맛이 봄날처럼 화사하고 황홀하다. 엔타이고량주에도 참 잘 어울린다. 지난봄을 의미하는 ‘작춘’에 두루마리 ‘권’이니 ‘지난봄을 말았다’가 된다. 요리 이름치고 매우 낭만적이다. 어느 집은 이 글자를 ‘炸’이라고도 쓴다.

회식 때 주문하는 요리로 전가복(全家福)이나 해삼주스(海蔘肘子)를 빼놓을 수 없다. ‘집안의 평화와 복을 기원하는 음식’이라는 전가복은 송이, 표고, 전복, 해삼, 새우, 오징어 등이 들어가 육류를 피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입 안에서 아주 부드럽고 얹전하게 씹힌다.

해삼주스도 이 집 것이 명성이 있다. 원래는 해삼에 돼지의 팔꿈치에 해당하는 다리 살을 넣

어 만드는 요리라는데 요즘은 삼겹살을 주로 쓴다고 한다. 노인들이 먹기에 더없이 부드럽고 또 보양도 된다. 술안주로 뛰어나다. 대중적인 요리로 신성루의 대표적인 것이 난자완스(南煎丸子)다. 자랄 때 집의 애들을 자주 먹었다. 이 집 난자완스는 한마디로 살이 부드럽다. 다른 집에서 종종 습기 없이 뻣뻣한 것을 대하는데 그것은 속성으로 기름에 튀겨내기 때문이다. 신성루는 시간과 공력을 들여 지저낸다. 걸쭉한 전분 소스를 뒤집어 쓴 고기 지짐이 덩이와 버섯류들, 푸른 배추가 잘 어울려 보는 것만으로도 접시가 호사스럽다. 그 풍부한 맛은 닭고기 육수가 가미되어서 난다고 한다.

기호대로 이 집 요리를 하나 더 소개하자면 오향장육(五香醬肉)을 들겠다. 오향은 회향풀, 계피, 산초, 정향, 진피 등의 향이라고 하는데 신성루에서는 통 속에 든 팔각(八角)이란 것을 내보인다. 매우 독특한 향을 가졌다. 이런 향료를 넣고 간장에 돼지고기를 조려 내는 것이다. 적당한 두께로 저민 돼지고기와 그 밑에 깔린 오이, 겉들이 달걀 삭힌 것들이 단정하고, 오묘한 향과 함께 입안에서 가지런하게 씹히는 맛이 일품이다.



40년의 요리경력이 내는 깊고 풍부한 맛

이밖에도 삭스핀, 해삼탕, 동파육, 양장피, 탕수육, 간풍기, 팔보채, 간소새우, 잡채, 냉채, 면보하 등등이 있는데, 중국의 수백 가지 요리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한 끼니 식사로 먹을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짬뽕 두 종류를 소개하고 이쯤에서 그치자. 짬뽕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정식 이름이 초마면(炒馬麵)이다. 어렸을 때는 초마면으로 불렸는데 이것이 왜 짬뽕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아무려나 신성루 짬뽕은 옛날부터 정평이 있었다. 맵지 않은 하얀 짬뽕과 붉은 고추짬뽕으로 나뉘는데 흰 짬뽕은 속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고 구수하게 가라앉힌다. 매운 고추짬뽕은 다소 자극적이지만 국물에 무슨 열정이 배어 있는 듯 맛이 화려하다. 여기에 해산물 세 가지가 더 들어가면 이른바 ‘삼선’ 운운하는 음식이 된다.

애초에는 월병을 팔던 상점이었는데 6·25 전에 요리점으로 전업을 했다. 원 주인은 7,8년 전에 작고한 산동성 출신 이영은(李永恩) 씨였다. 현 장덕영(張德榮, 55세)씨의 외삼촌으로 이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며 장씨에게 음식점을 넘겨준 것이다. 그것이 1987년, 26년이 흘렀다. 그동안에 ‘신생반점’에서 ‘신성루’로 상호도 바뀌었다. 장씨는 북성동 중산(中山)학교를 나와 이내 이씨 밑에서 요리를 익혔다고 한다. 그 이력만 대략 40년 가깝다. 이런 숙수(熟手)가 내는 요리니 맛이 있을 수밖에 없다.

“잠시 검문이 있겠습니다

흑시 연탄...”

글 유동현 본지편집장 사진 인천시청 앨범 발취



송현동 황해연탄공장의 60년대 중반 모습. 자동화, 대형화되기 전의 영세 연탄공장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공장 앞 수도국산 오르는 길은 50년이 지났지만 솔빛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것 외에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월동(越冬) 준비’라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던 때가 있었다. 날품을 팔아야 봉지쌀이라고 사먹을 수 있던 시절, 겨울나기를 준비하는 어머니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김장과 연탄이었다. 장독대 큰 독마다 김치가 짹짹 차있고 광에 시커먼 연탄이 몇백 장씩 쌓여 있어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던 그 시대의 어머니들. 세월이 흘렀지만 김장은 여전히 웬만한 가정의 일상사인 반면에, 연탄은 이제 월동준비 품목에서 거의 사라졌다.

연탄은 구멍의 개수에 따라 9공탄, 19공탄, 22공탄 등으로 불리었다. 1960년대 산림녹화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에 따른 농촌의 연탄보일러 보급 등으로 연탄은 가정용 연료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언덕을 오르는 연탄배달부의 시커먼 얼굴과 새끼줄에 달린 두 장의 연탄을 들고 가는 가장의 뒷모습 그리고 부쉈던 연탄 조각들을 모아 물로 반죽해 틀에 넣고 나

무망치로 쳐서 다시 연탄으로 만들어 벌이를 하던 아저씨의 모습은 그 시절 흔하게 마주칠 수 있는 풍경이었다.

당시 인천 곳곳에는 다양한 규모의 연탄공장이 있었다. 송현동 황해연탄, 창영동 영화연탄, 송의동 장흥연탄, 신생동 태성연탄, 주안동 대성연탄과 제일연탄, 신흥동 강원연탄, 부평동 한일연탄, 북성동 인천연탄 등이 있었다. 그러나 이 공장들은 인천지역의 하루 소비 물량 20만개 중 절반가량만 충당할 수 있었다. 60년대 중반 서울시가 타 지역으로 연탄 반출을 금지한 적이 있었다. 연탄기근으로 사재기가 극성을 떨쳤고 ‘암거래’까지 생겼다. 연탄을 사과궤짝에 담아 시외버스를 이용해 인천으로 내려오기도 했고 이삿짐으로 위장해 용달차에 실어 나르다 적발되기도 했다. 간첩을 잡기 위해 설치한 시계(市界) 검문소에서 ‘연탄검문’을 실시하는 웃지 못할 풍경이 연출되었다.

연탄 파동의 절정은 오일쇼크 때였다. 1974년 석유값이 치솟자 대체연료인 연탄의 수요가 급증했다. 정부에서는 ‘연탄구매카드제’를 실시했다. 각 가정은 이 카드를 동장으로부터 교부받았다. 가정용은 백색, 영업용은 황색이었다. 동네 연탄판매소에서는 이 카드를 가지고 온 가정에 50장 이하로 판매했다. 판매소는 매일 동장에게 판매

상황을 보고해야만 했다.

그즈음 ‘인조연탄’이 발명되었다. 76년 4월 정진석(당시 53세)씨는 10년 전 연탄가스로 아우가 사망하자 새로운 연탄개발에 몰두했다. 석탄 대신 왕겨를 주원료로 해서 점토와 백나이트석회를 섞어 만든 유사연탄을 개발했다. 재래식 연탄보다 열량은 높은 반면 가벼웠고 값이 싸으며 다 탄 것은 화초 거름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무엇보다 연탄가스 중독의 주범인 일산화탄소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연탄은 전국발명고안콘테스트 최우수상, 한국 특허협회 우수발명품으로 선정되었다. 하루 3천개 규모를 양산하기 위해 학익동에 공장을 세운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이후 이 연탄과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지 않을 걸 보면 아궁이에서 활활 타오르지 못하고 그저 시제품으로 끝난 것으로 추측된다.

78년 3월 이후 연탄공장의 대단위화 사업 추진으로 주택가에 있던 영세 공장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고 결국 자동화 시설을 갖춘 몇 개의 대형 공장만이 교외 지역에서 계속 연탄을 생산했다.

위 사진은 동구 송현동 피난민 수용소촌 옆에 있던 황해연탄의 1960년대 말 모습이다. 황해도 피난민 출신 유진성(劉鎭成) 사장은 연탄공장의 이름을 자신의 고향에서 따서 지었다. 이 공장에서 일하

는 사람들은 대부분 수용소촌에 거주하는 황해도 피난민들이었다. 일일이 삼을 이용해 석탄을 반죽해서 만든 연탄은 리어카와 소달구지를 이용해 보급소로 운송되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동네 아낙들이 한 폰이라도 아끼기 위해 연탄공장으로 몰려들었다. 사람들 틈에서 한 어린 소녀가 5장의 연탄을 올려놓은 빨래판을 머리에 이고 힘겹게 걸어 나오고 있다. 당시 월동준비는 애고 어른이고 구분 없이 모든 가족에게 철저하고 간절했던 겨울살이었다.

(연재 끝)



인천(仁川)이란 이름을 얻은 지 올해로 꼭 600년이 된다. 빛바랜 과거 사진을 통해 인천의 현재를 가늠해보며 미래를 그려 본다. 이 지면에는 1960년대와 70년대 이른바 인천의 ‘산업화’ 시절 사진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그 속에 맘 울리고 있는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코 울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매립지 연장, 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우리시가 즉각 반발했다. 수도권매립지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가진 환경부와 서울시는 2011년과 2012년에도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신청했으나, 우리시가 두 차례 모두 반려한 바 있다. 환경부와 서울시는 신청서에서 3매립장(307만1천㎡), 4매립장(390만㎡), 잔여지역(147만8천㎡)을 포함해 부지 844만9천㎡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수도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2016년까지로 돼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을 2044년까지 연장해달라고 명시했다. 이에 우리시는 2016년 매립을 종료하겠다는 강력한 견해를 담은 공문을 환경부에 보냈으며, 환경부는 매립지 연장을 추진하기보다는 각 자치단체가 자체 매립장을 마련해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조정해줄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라국제도시 입주민 등으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인천연대'도 환경부에 항의 공문을 보내고 환경부 장관 면담을

요구한 상태다. 이 단체 정경옥 위원은 “인천시와 서울시 사이에서 수도권매립지 연장 문제를 조정해야 할 환경부가 서울시 편을 들어 사용 연장 신청을 하다니 배신감이 크다”며, “환경부 장관이 인천시민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면담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도권 매립지는 조성 당시 시 외곽에 위치해 있었지만, 지금은 일대가 시가지로 바뀌어 주변 70만 인천시민이 극심한 교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지방자치법에서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문의 : 시 자원순환과 ☎440-3577



인천에 류현진 야구장 생긴다

미국프로야구 LA 다저스의 류현진 선수가 인천시에 야구장을 조성하고, 어린이 야구단 후원 등 사회 공헌 사업도 펼친다. 우리시는 지난달 26일 인천시청에서 류현진 선수와 인천 야구꿈나무 육성과 스포츠발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류 선수가 고향인 인천지역의 야구꿈나무 육성과 야구단 후원 등 사회공헌의 뜻을 부친을 통해 지난 3월 인천시에 전달, 야구장 신설부지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협약은 야구 꿈나무 육성·발굴을 위한 재단 설치지원과 어린이 야구단 후원 및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과 함께 유소년 야구 대회 개최, 성인야구 육성지원 등 인천지역 야구발전과 스포츠 진흥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야구장은 남동구 수산동 아시아경기대회 체육공원 내에 정규야구장 2면, 리틀야구장 1면 등 총 3면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야구장 조성과 관리·운영은 설립될 류현진 재단에서 맡을 예정이다. 이르면 이번 달 재단사무실을 개소해 야구장 건설을 본격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 : 시 체육진흥과 ☎440-4075



내년 인천시 예산 7조8천254억원 편성

우리시는 내년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12.2% 늘어난 7조8천254억 원으로 잠정 편성했다. 시는 지난달 11일 ‘2014년도 예산안 설명회’를 열고 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가 등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1년에는 6조5천637억원이고, 2012년은 7조5천448억원, 올해는 6조 6천9천768억원으로, 이는 역대 최고 예산 규모다. 시는 정부 복지 확대에 따른 국고 보조금과 부동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 등을 예산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일반회계는 5조2천485억원으로 올해보다 12.1%(5천652억원), 특별회계는 2조5천769억원으로 12.4%(2천834억원) 증가했다. 시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내년도 4대 핵심사업으로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4천883억원), 경제수도 완성(5천429억원), 사회복지 확대(2조947억원), 주거환경개선·도로확충 등 원도심 활성화(2천368억원)사업을 정했다. 시는 내년도 정부 지원금으로 정부 예산안에 약 1조9천억원을 반영, 역대 최대 국고 보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기준 인천시 부채는 모두 9조4천369억 원으로 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도시철도 2호선 사업 등으로 민선 5기 송영길 시장 취임 당시인 2010년 6월에 비해 17.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기간 일반회계는 오히려 876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 시 예산담당관실 ☎440-2241

공항철도 청라역 개통 맞춰 버스 노선 조정

우리시는 지난달 21일 ‘2013년 하반기 버스노선조정위원회’를 열어 인천국제공항철도 청라역 개통에 맞춰 버스 노선을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시는 청라우미린아파트를 기점으로 청라4단지, 호수공원을 지나 청라역까지 연결되는 42-3번 버스 노선을 신설할 계획이다. 770번, 904번, 904-1번 버스는 기존 노선을 연장·변경해 청라역을 거치도록 정했다. 공항철도 청라역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복인천 나들목 근처에 이달 28일 개통할 예정이다. 한편 버스노선조정위는 인천대 송도캠퍼스에서 송도2교를 지나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을 가는 780-2번 버스 노선도 신설하기로 했다. 송도2교를 지나는 버스 노선이 처음 생기는 것이다. 이밖에 남동구 논현동 한화지구, 서창2지구 등 대규모 주택 단지와 중구 연안부두 일대 버스 노선 일부를 조정했다. 시는 각 버스업체와 협의해 이르면 이달부터 새 노선대로 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문의 : 시 버스정책과 ☎440-3952

송도에 ‘재미동포타운’ 들어선다

송도에 재미동포를 위한 재미동포타운이 조성된다. 재미동포타운 시행사인 코암인터내셔널은 지난달 7일 송도 캠퍼스타운역 주변 현장에서 기공식을 열고 건설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코암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 현지에서 수차례 청약 설명회를 열었고 지난 5월 말부터는 송도에 분양 홍보관을 열어 재미동포를 대상으로 분양했다. 이날 현재 아파트 분양과 오피스텔 청약 건수는 1천100건에 달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코암인터내셔널은 내년 3월부터는 잔여 물량을 가지고 내국인을 상대로 분양할 계획이다. 코암인터내셔널은 현대엠코를 우선협상대상 시공사로 선정, 본계약을 맺은 뒤 이달 중 착공할 계획이다. 2017년 상반기부터 입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재미동포타운에는 아파트(830가구)·오피스텔(1천974가구)·레지던스호텔(286실)과 헬스장, 음악당 등 주민 복지·레저시설이 들어선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141



영종도에 보잉사 항공훈련센터 ‘첫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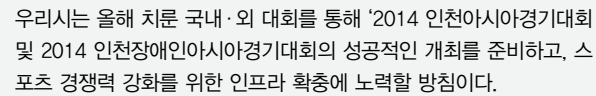
연간 3천500명의 조종사가 훈련받을 수 있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미국 보잉사 훈련센터가 영종지구에 들어선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5일 공동 사업자인 대한항공·보잉코리아가 인천시 중구 운북동에서 보잉사항공운항훈련센터 기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센터는 3만2천㎡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2015년 9월 완공할 예정으로, 대당 2천500만달러(264억8천만원)인 모의비행장치 12대와 보잉사가 파견한 교관 약 100명을 갖추게 된다. 보잉코리아는 보잉사가 100% 출자한 외투 법인으로 1988년 설립돼 약 2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경제청은 대한항공과 미국 항공기 엔진 생산·정비업체인 PW(Pratt&Whitney)사의 합작법인이 내년 3월 영종지구에 항공엔진 정비센터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경제청은 항공 관련 시설이 잇따라 들어서면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영종지구가 항공산업을 러스터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 경제자유구역청 ☎453-7372



인천지하철 모든 열차에 임신부 배려석 지정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지하철 1호선 모든 열차에 임신부 배려석을 지정했다. 열차 1칸마다 2석을 지정, 열차 1편성(8칸)에 총 16석의 임신부 배려석을 만들었으며, 교통공사는 누구나 임신부 배려석을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석에 ‘임산부 배려 엠블럼’을 부착했다. 이 외에도 교통공사는 일반 승객이 가장 고리로 임신부를 알아보고 배려하도록 각 역사에서 임신부에게 이 엠블럼이 부착된 가방 고리를 나눠주고 있다. 한편 교통공사의 관계자는 “열차 내 안내방송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로 임신부를 배려하는 대중교통문화를 정착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인천교통공사 ☎451-2114





‘살기좋은 아파트 대책마련...’ 토론회

인천광역시의회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6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인천광역시,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주거문화연구소 은난순 연구위원은 ‘아파트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현황’ 주제 발표를 통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지원 방향을 제시하고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했다. 주제 발표가 끝난 뒤 홍성욱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만희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오윤영 인천대 사회경제연구센터 연구위원, 강기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회장, 문흥기 인천시 아파트연합회 사무총장, 라진구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연수구지회 사무처장, 박재성 희망을만드는마을사람들 공동대표가 패널로 참가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한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정수영 위원장은 주제발표로 제시된 다양한 정책제언 및 각계 전문가의 토론 내용을 시의회 차원에서 검토·정리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10월 아파트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아파트 생활환경 개선 지원 및 입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시의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지역 여성경제인 발전 의견 수렴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7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를 방문하여, 여성 창업자들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인천지역 여성경제인들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방문단은 “여성기업인의 심세함과 감수성으로 창조적 경제 실천의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의회에서도 여성 경제인들이 경영 애로점을 파악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성만 의장은 남동산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여성창업 보육센터 담당사 등 직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에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면 노동현장에서 임금, 고용 등 많은 차별이 있다”고 말하고, 여성 유망 직업교육과 창업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등 7곳 행정사무감사

인천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달 14일부터 20일까지 도시디자인추진단 및 건설교통국을 포함한 총 7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건교위는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청취와 더불어 시정전반에 대한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특히 건교위는 감사일정의 상당부분을 현장감사에 집중해 찾아가는 의정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건교위는 현장감사를 통해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거생활 불편 사항 및 안전 위해요소, 건설현장 등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미비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

차세대 정치지도자과정 프로그램 운영

인천광역시의회는 관내 대학생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지방의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11기 ‘차세대 정치지도자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차세대 정치지도자 과정은 2010년 하반기부터 운영하여 300여 명의 인천지역 대학생들이 참가한 대표적인 의정체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의회소개, 시의원과의 대화, 모의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역할연기, 지방의정 특강, 수료식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원과의 대화 시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씩 의원들이 참여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했다. 지방 대학생의 취업문제, 여성들의 정치분야 진출, 의료관광, 노인복지,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제 등 시정현황에 대한 날카로운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모의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대학생들은 “송도국제도시 대 학로 주변 문화공간 조성 및 저가 숙박시설 건립지원조례안” 등 4개 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연설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대책 마련 촉구’, ‘인천시 한글사용 확대’, ‘아동학대 예방활동 강화’에 대한 발언이 있었고, 시정질문으로 ‘골목상권 붕괴 방지 대책’, ‘청소년 범죄대책 마련’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도 있었다.



의정모니터 6건 우수제안으로 선정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달 12일에 올해 9,10월 의정모니터 중 제안서 32건을 심사한 결과 6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 의정모니터단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조경공사에 기존 공원 등에 식재된 밀도가 높은 수목을 이식하는 조례를 제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수목 이식 시 예산도 절감하고 수목의 성장과 유지 관리의 효용성이 높아진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철도 전동차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노선안내도에 대하여 아크릴 모양 투명 돋보기 등을 이용, 안내도를 확대하자”고 제안하여 우리시대 사회적 약자인 노약자와 저시력자에 대한 배려로 작지만 공감할 수 있는 복지를 실현하자고 하였다. 그 외 ‘100회 이상 다회 헌혈자에 대한 표창 수여’로 헌혈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하자는 제안과 ‘사면(법면)의 안정화 시공시 식생마대를 사용’하여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 등이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었다.



구별 순회방문 간담회... 아파트 입주민 의견 청취

인천광역시의회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동구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구별 순회 방문 간담회를 갖고 아파트 입주민들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구별 순회 방문 간담회는 특위가 지난달 11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특위 활동에 반영하고자 추진했다. 이날 동구 일정에 이어 15일에는 부평구 등 이달 말까지 8개구를 순회했다. 정수영 위원장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이 50%를 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사유지라는 인식 때문에 아파트나 입주민에 대한 지원이나 복지는 소홀하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데서 특위가 출범한 것이라면서 아파트단지에 대한 공공 지원을 확대하고 입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인천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최용덕 시의원은 지난달 7일 지역구인 도화동 인천기계산업단지과 행정타운, JST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 등을 점검한 후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도화 2,3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는 약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하여 도화구역 행정타운, JST 건설사업 및 투자유치 현황과 인천기계산업단지 등에 대한 소관부서의 설명을 들은 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 대표단 방인

인천광역시의회와 우호관계에 있는 몽골 울란바타르시의회 대표단이 지난달 3일부터 7일까지 시의회를 방문했다. 지난달 4일 시의회를 예방한 양 도시 의회 의원들은 청소년 교육과 스포츠 교류 등 상호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였으며, 시의회 이성만 의장은 양 도시 의회간의 지속적인 상호 우호교류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회 이성만 의장과 울란바타르시의회 대표단은 지난달 5일 인천대학교를 방문하여 양 도시 대학생들의 교류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울란바타르시의회 대표단은 방인기간 동안 문학박태환수영장 등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경제자유구역 등을 둘러보며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인천의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Info+box



2014 갑오년
‘인천시 사자성어’를 찾습니다

2013
鶯飛魚躍

우리시는 2014년 갑오년 인천시민의 마음과 마음을 잇고, 인천시의 시정철학이 될 사자성어를 공모한다.

사자성어에 표현될 내용
GCF 사무국 출범으로 높아진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 2014 인천아시안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온힘을 기울이고, 원도심과 함께하는 행복한 경제수도 인천을 완성하자는 의미 표현

참가자격 및 응모건수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 응모는 1인당 2개 이내로 제한

사자성어는 한자와 한글을 병기하고, 뜻풀이나 유래를 간단하게 적어서 제출

공모기간 및 접수방법
12월 14일(토)까지
이메일(yona@korea.kr), 엽서, 우편, 팩스(☎032-440-8622), 우편(보낼곳 : 인천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대변인실 미디어팀)은 12월 14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수상작 시상
공모내용에 부합한 사자성어를 접수한 참가자 중 20명을 선정해 그 중 1등작에는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온누리상품권), 나머지 19명에게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당선자는 12월 20일 이후 개별 통보할 예정

문의 : 440-8302

성인남녀 중고등학생 모집

남인천중고등학교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분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드리고자 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구분	중학교	고등학교
모집인원	학급(200명)	4학급(160명)
수업연한	2년(1년 3학기)	2년(1년 3학기)
입학자격	①초등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②교과부 지정 성인문해학교 초등 학력인정 과정 이수자	①중학교 졸업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 ② 만 16세를 넘은 자
구비서류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또는 검정고시합격증 원본) 4. 초등학교인정 성인문해학교 이수증 원본 5. 전형료 3천원 6. 현장학습비 6만원	1. 도장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중학교 졸업증명서 1부(또는 검정고시합격증 원본) 4. 전형료 3천원 5. 교과서 대금 9만원
원서접수	10월 1일(화)부터~선착순 접수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30분(토, 일, 공휴일은 접수 안함)	

문의 : 722-1311~4

연수문화원 겨울 문화학교 열어

연수문화원은 겨울문화학교를 열고 유아·어린이, 성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육기간 : 12월 2일(월)~2014년 2월 26일(수), 3개월

접수기간 : 12월 13일(금)

장소 : 연수문화원(연수구청 7층)

신청 홈페이지 : call.yeonsu.go.kr

창작동아리 서로습작발표평가전람회

연수문화원 문화예술 창작동아리는 회원들의 개성 넘치는 습작과 작품을 전시한다.

오픈식 : 12월 21일(토) 13:00

전시 기간 : 12월 21일(토)~30일(월)

장소 : 연수갤러리(연수구청 의회동 1층)

문의 : 821-6229

※ 특별행사 : 목공예 소품경매(오픈식 이후 14시부터)

Info+box

미추홀도서관 문화행사 참여하세요

미추홀도서관은 12월 도서관 문화행사를 마련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특별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문의
그룹1279 단체전	11월 27일(수)~12월 15일(일)	미추홀터 전시실(1층)	청소년 이상	440-6643
시민건강강좌 「암의 방사선 치료법」	12월 14일(토) 10:30~11:30	세미나실1 (3층)	전체	440-6663
김진희 작가전	12월 26일(목)~ 2014년 1월 12일(일)	미추홀터 전시실(1층)	전체	440-6643

상시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일시	장소	대상	문의
e-book 및 오디오 북 서비스	24시간	미추홀도서관홈페이지 스마트폰	전체	440-6654~5
미추홀 영화 상영	매주 토·일 14:00	강당(지하 1층) ※홈페이지 참조	-	440-6641~2
꿈나무터 극장	매주 화요일 16:00	꿈나무터 문화교실 (1층)	4세~ 초등 5학년	440-6647~8
책마중(관외예약 대출·반납)서비스	24시간 대출·반납	예술회관역(지하 2층) 미추홀도서관(1층 입구)	미추홀도서관 회원	440-6634~5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ichuholib.go.kr)를 참고하세요.

컴팩스마트시티 12월 행사

컴팩스마트시티는 12월을 맞아 한해를 정리하면서 여가를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12월 셋째주 화요일(12월 17일) 15:00 경인방송에서 진행되는 독서 콘서트 [명로진-베껴 쓰기로 연습하는 글 쓰기 책]

12월 넷째주 토요일(12월 28일) 14:00 어린이를 위한 토요 영화제 [라따뚜이] 상영

12월 매주 일요일(12월 1일~9일) 14:00 독립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일요 다양성 영화제

12월 31일까지 인천 정명 600주면 맞이 인천 타임슬립, 다른 시간 같은 장소 - 인천의 어제와 오늘을 담다

일요 다양성 영화제

일시 : 매주 일요일 14:00, 장소 : 컴팩스마트시티 3층 영상관

일 시	영 화	등 급
12월 8일	우리학교	전체 관람가
12월 15일	누나	15세 관람가
12월 22일	두 개의 선	15세 관람가
12월 29일	두만강	15세 관람가

율목도서관 12월 문화예술 행사

율목도서관은 12월을 맞아 가족과 아이들이 즐길만한 문화예술 행사를 마련했다.

기간 : 12월 1일~31일

접수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

참가비 : 무료

문의 : 770-3800

행사명	일시	장소	주요내용
[송년도서기증 행사] 잠자고 있는 책을 깨워주세요!	12월 12일~ 12월 27일 09:00~18:00	본관 1층	내 소장도서를 기증하고, 2014년 달력을 받자! *기증받은 도서는 정보소외기관에 재기증됩니다.
[행사] 2013 율목 AWARDS	12월 29일(일) 오후 2시	본관 2층 소극장	2013 책임는 가족 및 부문별 우수이용자 시상식
[전시] 12월 테마도서 전시	상시	일반자료실	도서관 속 숨겨진 보물같은 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추천도서 전시
[북스타트] 생각이 쑥쑥 자라는 독서교실	1, 3주 수 오후 2시, 3시	어린이실	책으로 만나는 실버도우미와 함께 북스타트 추천도서 읽기 및 독후활동 자녀를 둔 엄마끼리 모임형성
[어린이상시프로그램] 「이야기 보따리 술술」	매주 화, 목, 토 오후 4시	어린이실	사서, 자원활동가가 그림책 읽어주기 진행
[어린이상시프로그램] 독서왕! 율목 밤불이	상시	어린이실	매월 최고점자 각 1인 선정 후 어린이 사서체험 및 선물(도서) 증정
[어린이상시프로그램] 독서통장 발급	상시	어린이실	
[건강프로그램] 올레올레 도서관 여행기	매주 수, 목	어린이실	도서관 소개, 이용교육, 관련 영상 감상, 약속카드 만들기, 자율독서 등

휴띠꼬 이벤트 참여하세요

인천시가 뷰티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인천 뷰티제조사 공동 브랜드숍인 ‘휴띠꼬’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참여방법 : 휴띠꼬 제품의 사용후기를 휴띠꼬 홈페이지 이벤트 코너에 등록

홈페이지 : www. huetique.com

참여기간 : 11월 27일(수)~12월 13일(금)

발표날짜 : 12월 16일(월)

추첨인원 :10명

사은품 : 유승호 모델 화장품 유앤비(6종)세트 :26만3천원

선정방법 : 사용후기에 추천 클릭수 최다 득표 상위 10명 선정
(단 추천은 회원가입 및 IP당 1회 참여가능)

문의 : 440-3279

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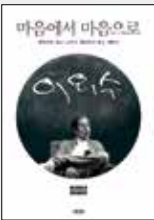
좋은 아빠의 자격
서진석 | 북라이프 | 2013

아이와 공감하고 소통하는 좋은 아빠가 되는 길로 이끌어 주는 책이다. 노력하고자 하는 한 아빠가 아이들과 함께 나눈 교감의 여정을 살펴봄으로써 좋은 아빠의 역할을 알아볼 수 있다.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아이와의 관계 형성에 있어 아이의 출생 후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의 시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한다.



두려움은 서둘러 찾아오고 용기는 더디게 힘을 낸다
고든 리빙스턴 | 리더스북 | 2013

죽음이라는 생명의 유한성이 갖는 근원적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은 이 책은 죽음이 일상 속에 있음을 인정한다. 그리하여 삶이 더욱 가치를 갖게 되는 역설의 진리에서부터 불운한 운명 때문에 생기는 개인적 두려움, 나아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사회가 조장하는 의도된 두려움까지 다루고 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외수 | 김영사 | 2013

파란만장한 인생역정에서 얻은 파격의 성찰에서 피나는 수행과 고행에서 꽃피운 깨달음의 지혜까지, 우리가 그간 알지 못했던 이외수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 칸 방 안에서도 우주를 만나는 작가 이외수는 그가 세상과 간절히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를 후배 소설가 하창수와의 대담을 통해 담아냈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 열린책들 | 2013

100세 생일날 슬리퍼 바람으로 양로원의 창문을 넘어 탈출한 알란이 우연히 갭단의 돈가방을 손에 넣고 자신을 추적하는 무리를 피해 도망길에 나서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기자와 PD로 오랜 세월 일해 온 저자의 눈썹이 데뷔작으로 1905년 스웨덴의 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노인이 살아 온 백 년의 세월을 코믹하고 유쾌하게 그려냈다.

추천도서 목록

자료제공 미추홀도서관 ☎440-6654				
순번	서명	지은이	출판사	책 소개
1	여행자의 서재	이권우	동녘	길에서도 쉬지 않는 책읽기!
2	두려움은 서둘러 찾아오고 용기는 더디게 힘을 낸다	고든 리빙스턴	리더스북	더 행복한 삶을 만드는 용기에 관한 진실 31
3	자기 돌봄	타라 브랙	생각정원	서양의 심리학과 동양의 불교 명상과의 만남!
4	잉여사회	최태섭	웅진지식하우스	남아도는 인생들을 위한 사회학
5	원생	게리 켈러, 제이 파파산	비즈니스북스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6	우리 안의 우주	닐 투록	시공사	인간 삶의 깊은 곳에 관여하는 물리학의 모든 것!
7	좋은 아빠의 자격	서진석	북라이프	아마추어 아빠에서 프로 아빠가 되는 길잡이
8	사진을 말하다	데이비드 두쉬민	정보문화사	좋은 사진을 위한 시각 언어의 비밀
9	처음 만난 외국인과의 대화 매뉴얼	Mr. Sun	올드스테어스	상대의 마음을 여는 4단계 대화법
10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외수	김영사	생각하지 말고 느끼기 알려지지 말고 깨닫기!
11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요나스 요나손	열린책들	세계 역사를 뒤바꾼 영감의 모험!
12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우리 명승기행	김학범	김영사	김학범 교수와 함께 떠나는 국내 최초 자연유산 순례기

이달의 인천 향토작가



소설가 **김금희**

1979년 부산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성장했다. 인하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2009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너의 도큐먼트〉가 당선되어 등단했다. 공간과 세대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며 소설이란 이제는 갈 수 없는 집들을 향한 깊은 애도라고 생각한다. 주요 작품으로 〈센티멘털도 하루이틀〉, 〈당신의 나라에서〉, 〈사북舍北〉 등이 있다.

Incheon Life Story

인천 사는 이야기



월미도, 아름다운 노을

퇴근길에 월미도 노을이 예뻐서 한 컷 담았습니다. 바다, 노을, 갈매기, 유람선까지 모두 담을 수 있던 건 행운입니다.

노철민 부평구 장제로



따뜻한 햇살이 그리워

첫눈이 내리고 코끝 시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뽕송뽕송하게 빨래를 말려주던 따뜻한 햇살이 그리웁니다.

백유진 연수구 청랑로



연평도 포격 그 후

'2010년 11월 23일, 이 날을 잊지 말아주세요.' 연평도가 포격을 당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연평도는 한마음으로 평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장혜원 연수구 원인재로

정감 있는 구도심 풍경

인천의 구도심인 동구에는 거리 곳곳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화수동 어느 집 담벼락이예요. 길을 걷다가도 잠깐 멈춰서 미소를 지어 봅니다.

신진성 부평구 육동로



〈굿모닝인천〉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잡지입니다. 애정어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을 주제로 한 사진과 글을 받습니다. 인천 풍경에 대한 단상, 인천에서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간단한 사연(원고지 1매 분량)을 보내 주세요.
- ※ 채택되신 분께는 온누리상품권(2매, 장원은 3매)을 보내드립니다. 마감은 매월 20일까지입니다. 응모하는 분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접수합니다.



보내실 곳

우) 405-750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대변인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홈페이지 : goodmorning.incheon.go.kr
문의 : 440-8305

여기가 어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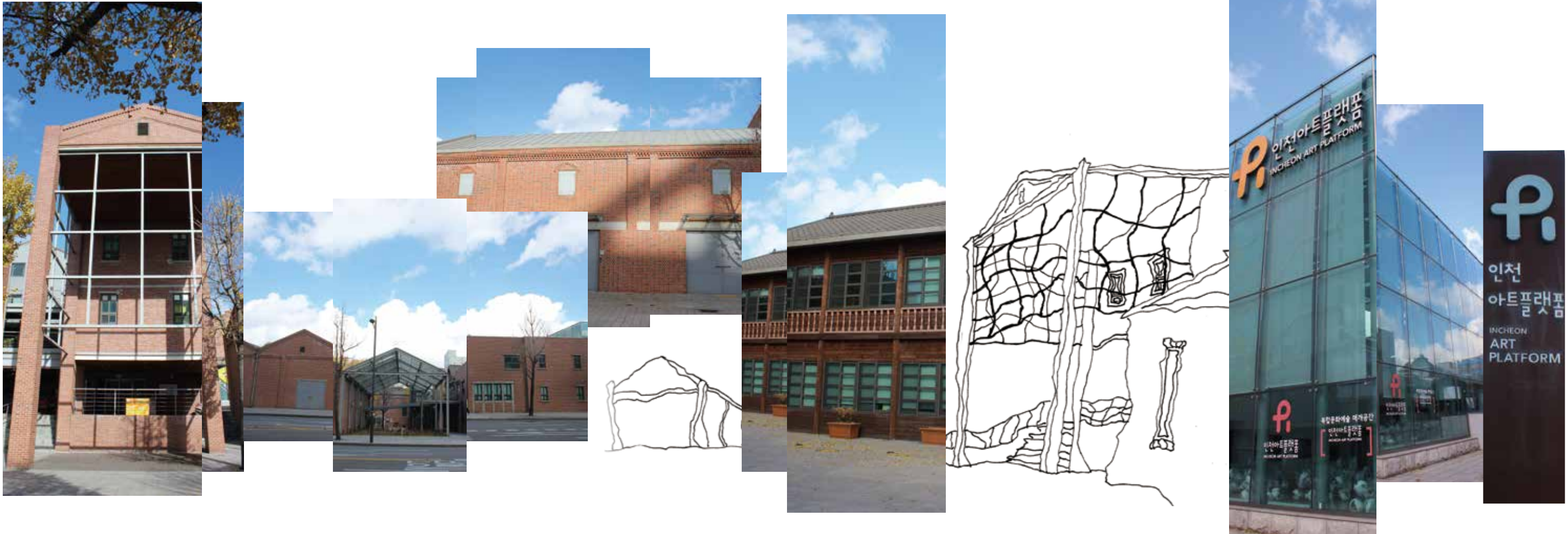
인천의 명소를 맞춰 보세요

힌트 : 송학동 자유공원 근처에 있는, 무지개 모양의 석문

※ 네 분을 선정하며 접수는 우편과 메일(bluelou7@korea.kr)로 받습니다.

〈지난 호 정답〉 마니산 참성단

최영욱 용인시 수지구 / 김영자 중구 흥예문로
김미애 서구 신흥로 / 김영자 경원대로



‘터진개’로 다시 문화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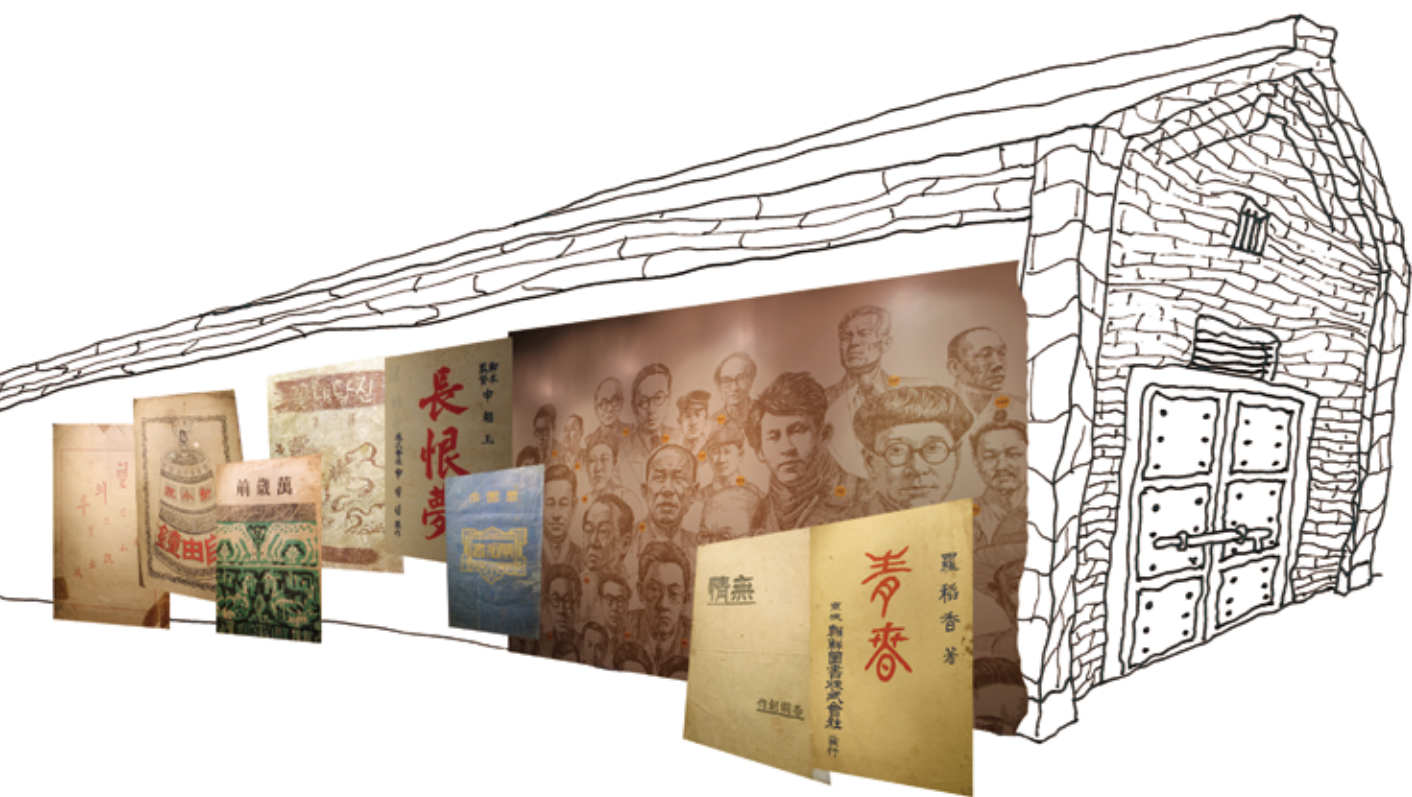
솔솔 불어 온다

터진개, 신포동은 멋쟁이 거리다. 7,80년대 연말연시가 되면 인천인은 그냥 신포동 거리로 쏟아져 들어왔다. 한때 인천인들의 술결과 애환이 실린 가장 인천다운 거리로 손꼽혔다. ‘로데오’라는 명칭을 함께 붙이고 있지만 구월동 로데오에 밀리는 듯 보이지만 신포동에는 그곳이 가질 수 없는 ‘그 무엇’이 분명 있다. 최근 아트플랫폼의 문화향과 신포시장 닭강정의 새콤달콤한 향이 어우러져 젊은이들의 발걸음을 다시 모으고 있다.

그림 · 글 · 사진 차지원 일러스트레이터

신포동은 개항기에 신문물이 유입된 제물포항과 인접해 있던 동네다. 주변에 항구의 배후지이자 물자 수출입 중심지답게 빨간색 벽돌의 창고가 줄지어 있다. 이 창고들이 예술창작공간 ‘아트플랫폼’으로 다시 태어났다. 인천아트플랫폼은 허름한 도시건축물도 얼마든지 멋진 문화공간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창고들의 과거를 보면 대한통운 창고, 술도매상 창고, 삼우인쇄소, 허름한 다방 등 1930~40년대에 건설된 공간들이었다. 쇠락한 도시의 전형적인 뒷골목이었던 이곳이 ‘예술’이란 이름을 얻으며 트랜스폼되었다. 특히 아트플랫폼 자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천우선회사(시 등록문화재 248호)는

아트플랫폼 창고 중 시간성 발견측면에서 볼 때 말 그대로 ‘우선’이다. 리모델링 작업 중 국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근대건축물임이 확인되었다. 보수공사 도중 상량판이 발견되었다. 상량판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건축연대가 1888년 9월에서 12월 사이로 추정된다. 이렇듯 옛 창고를 비롯해 영광수퍼, 대진상사, 양문교회 건물 등을 리모델링 해 13동을 하나의 회랑으로 연결해 예술창작공간으로 멋지게 탄생한 것이다. 아트플랫폼은 A동부터 H동까지 이어지는 건물로 다양한 입주예술가들의 공연, 전시장으로 활용된다. 관광객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잠시 쉬었다가는 커뮤니티관 등 시민을 위한 시설도 마련돼 있다. 커뮤니티관에 전통찻집이 들어서면서 향긋한 차향을 즐기러 오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지역 예술인은 이곳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작품발표를 하고 시민들은 수준 높은 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얻는다. 복합문화예술 매개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하며 인천 문화예술에 한층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최근 아트플랫폼 바로 옆에 인천근대박물관이 개관했다. 이것도 백년이 넘는 창고를 개조해 만들었다. 한국의 근대문학 작품들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당시 한국인의 정서를 그려 넣은 것들이다. 이런 근대문학 작품들이 일본식 건물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모양새를 보니, 왠지 기분이 묘하기도 하다.

근대문학관은 기획전시와 상설전시, 다목적실로 분류해 각각 다른 테마로 꾸며놓았다. 기획전시실에선 문학과 미술의 만남,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근대문학 해석 등 다채로운 시각으로 근대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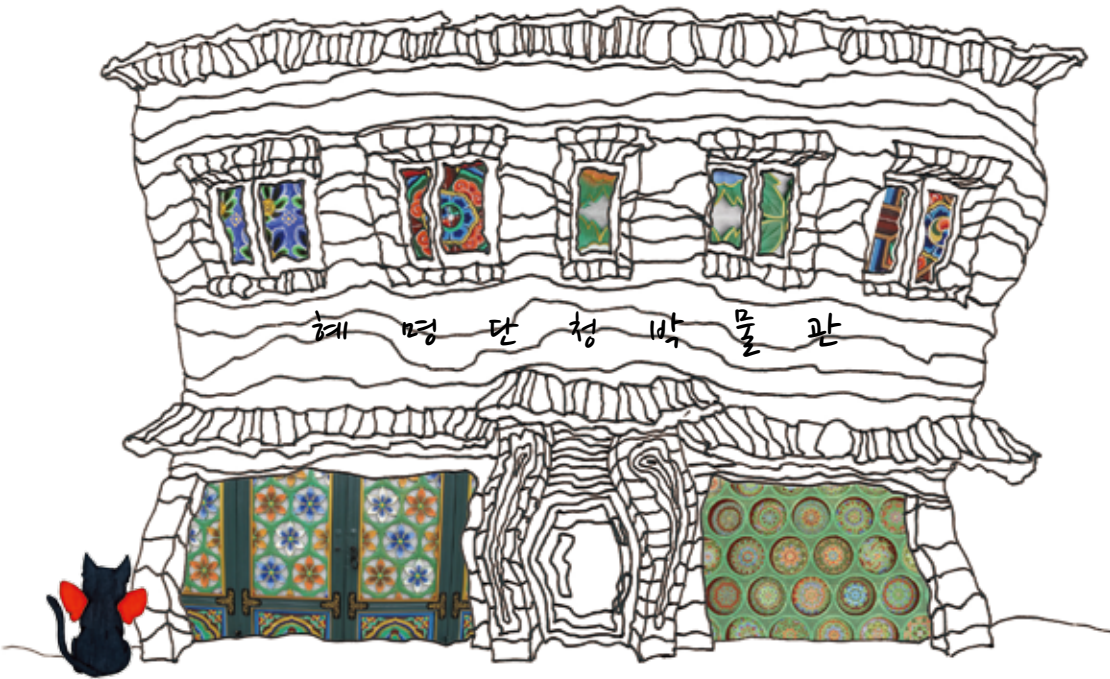
무정, 장한몽, 만세보, 혈의 누... 와우, 이것들은 교과서에 실렸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대 문학들이다. 실제로 누렇게 바랜 이 책들이 이곳에 있다. 상설전시실은 우리나라 근대문학에 있어 중요 작품들을 전시하고, 당시 문인들이 자주 가던 다방의 모습을 재현해 포토존을 만들어 놓았다. 주목할 만 한 것은 체험형 전시라는 점이다. 근대문학을 토대로 영화를 상영하는 상영관도 있고, 스마트폰을 활용해 근대문학퀴즈를 풀어볼 수도 있다.

해명단청박물관

최근 복원한 송례문 때문에 말이 많다. 복원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단청이 벗겨지고 훼손되었기 때문이다. 단청에 대해 잘 모르던 사람들도 단청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 전통문화인지 알 수 있다. 그런데 근대문학관 옆 쪽에 단청을 체험할 수 있는 단청 박물관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까? 무형문화재 제14호 정성길 단청장은 우리나라에서 단청만을 주제로 한 최초의 해명단청박물관을 열었다. '해명'은 그이의 호다. 그 속엔 그동안 정성길 관장이 모은 자료만 2천여 점이 넘게 들어있다. 목재, 불상, 불화 등 단청작품을 볼 수 있다. 관람객들은 무형문화재인 단청장이 들려주는 단청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 생생한 단청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방문객들은 당시의 잡지나 시집을 본각본으로 체험하며 근대문학을 가깝게 느껴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인천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나, 인천의 문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볼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이다. 이곳에 와 그냥 쓱 훑어만 봐도 국어 성적이 쑥 오를 것 같다.

전시실을 둘러본 뒤에는 2층 상설전시실에 마련된 미니 도서관에서 직접 작품을 읽어볼 수도 있다. 학창시절 교과서로 읽던 작품이 이젠 재미있는 역사소설로 다가와 학생들도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다목적실은 각종 문학 및 인문학 관련 교육이나 행사, 시민모임 공간으로 활용된다. 근대문학관에서는 청소년 대상, 전문가, 전시연계, 인문·교양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문학을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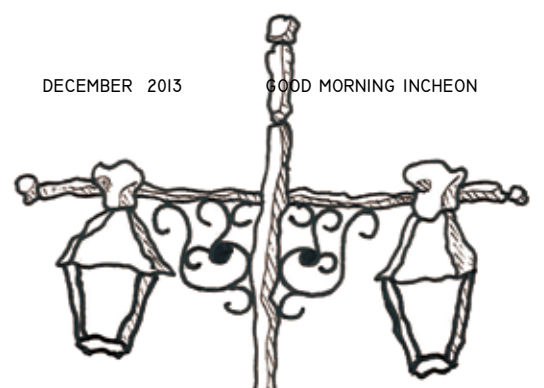




개항장거리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신포동 로데오거리로 들어선다. 예전에는 인천의 명동거리로 불릴 만큼이나 변화한 거리였다. 넓게 뻗은 도로와 커다란 건물들만 봐도 어렵풋 짐작이 간다. 커다란 금강제화건물이나 의상실 등 당시 젊은 사람들이 쇼핑을 즐기던 곳이 아닐까 싶다. 요즘 들어 거리 곳곳에 젊은이들이 자주 찾는 카페들이 많이 들어섰다. 그 덕인지 한동안 주춤했던 로데오거리 일대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저녁이 되면 학생들과 퇴근한 직장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고,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단골가게를 찾아온 지역주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곳으로 발걸음을 향하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 다양한 먹을거리로 유명한 신포시장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벌써 길게 늘어진 줄을 보니, 무얼 먹을까 고민이 시작된다. 역시 닭강정을 기다리는 줄이 가장 길다. 사람들은 두, 세 줄씩 꼬리를 물고 입맛 다시며 닭강정만 바라보고 있다. 치킨을 양념에 버무리는 아주머니의 손길이 바쁘지만 익숙하다. 신포닭강정이 신포거리를 들었다놔다 한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다.

시장을 둘러본 뒤 나오는 길에 이것저것 먹어야겠다고 다짐하며 지나친다. 신포 만두, 순대, 공갈빵의 유혹을 모두 이겨내고 나가려는데 도저히 뿌리칠 수 없는 것을 발견했다. '게임'이다. 그리고 보니 오늘이 대형마트 휴일이라고 한다. 신포시장에선 대형마트가 쉬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맞춰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게임을 통해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승부욕을 불태우며 게임에서 이기고 나면 할인권이나 원 플러스 원(1+1) 등의 경품을 손에 질 수 있다. 재래시장은 정만 넘치는 줄 알았더니, 흥도 넘치는가 보다.

신포시장은 인천 상설시장의 역사 한 페이지를 꿰차고 있다. 1902년 옛 신포마켓 자리에 인천 수산업계의 대부로 알려진 정흥택이 근해 어업자들의 어획물을 사들여 상설 어시장을 개설했다. 어시장보다 뒤늦게 등장한 것이 푸성귀 농산물 시장이었다. 바로 지금의 신포시장이다. 이는 한국인이거나 일본인이 아닌 청국인이 개설했다. 생선류를 파는 어시장인 제1시장은 1929년 12월에, 청과류를 다루는 농산물 제2시장은 1933년 7월에 각각 신포동에 건물을 신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경영에 들어갔는데 제1시장은 벽돌 단층 1동에 28구획, 제2시장은 목조 단층 1동 31구획 규모였다.



2013년 과월호 목차


굿모닝 인천

Good Morning INCHEON


굿모닝인천(goodmorning,inccheon.go.kr)은,
‘인천시미디어’ 앱, 소셜웹(social,inccheon.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월호	소통과 화합	
	Incheon Life 함께하는 인천 르포 동서남북 인천인이 사랑한 오래된 밥집 공감 아름다운 사람 Culture News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시정뉴스 의정뉴스 생활정보 건강칼럼 이달의 서평 인천이야기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모닝 커피 한잔	전통시장 이용하기 마을공동체 송림배구장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송의동 춘천막국수 송영길시장의 시정일기 경인방송 iTVM 박근혜 아나운서 Band Day 외 산언화 시대의 인천 원도심 도화구역에 제2행정타운 착공 외 북지구현, 2014 인천AG 차질없는 준비 최선 외 2월 문화행사 보러오세요 외 수돗물불소화 인문의 바다에 빠져라 외 사진 공모전 수상작 송도센트럴파크 드라마고(퍼포먼스 반지하 대표)


4월호	소통과 화합	
	사월 풍경 Dynamic Incheon 봄 특징 포커스 Tasty, 인천 아름다운 사람 인천인이 사랑한 오래된 밥집 Culture News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시정뉴스 의정뉴스 생활정보 이달의 서평 인천 사는 이야기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모닝 커피 한잔	화도진 인천국제축구팀 꽃차 사회적은행 ‘함께하는 사람들’ 오래된 동네 빵집 '아빠와 크레파스' 양현경 '숨미장'의 복 중탕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26회 정기연주회 외 산업화시대의 인천 노벨수상자, 인천 강단에 서다 외 경인아라뱃길 사업 개선 주민간담회 외 울목도서관 문화예술 행사 외 인생의 여백을 사랑하라 외 비행기는 높아, 높은 건 갈매기 외 자유공원 이성진 인천골목문화지킴이 이사장


1월호	소통과 화합	
	2013 신년사 Vision Incheon 포커스 여기, 인천 Special 아름다운 사람 인천인이 사랑한 오래된 한식당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Culture News Civic News Council News Infobox 건강백세 뉴스플러스 이달의 서평 인천사는 이야기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모닝커피 한잔	송영길 시장, 이성만 시의회 의장 2013 시정키워드 만화로 보는 2013 인천시정 동인천 지하상가 카페에서 바다보기 '무거운' 삶 이기는 '가벼운' 웃음 경동 삼강옥 산업화 시대의 인천 '인천시립극단 제64회 정기공연' 외 '세계적 자동차 부품기업, 인천에 온다' 외 '토지주택공사 관련 조사특위 3월까지 연장' 외 '1월 문화예술에 참여하세요' 외 스트레칭만 제대로 해도 운동효과 '굿' 2013 시정 사자성어 '트렌드 코리아 2013' 외 '인기 좀 풀던 그때' 외 월미산 강옥엽 시 역사자료관 전문위원


3월호	소통과 화합	
	Green Incheon 인천 대학가 Enjoy Incheon Incheon 탐방 아름다운 사람 인천인이 사랑한 오래된 밥집 Culture News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시정뉴스 의정뉴스 생활정보 이달의 서평 인천 사는 이야기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모닝 커피 한잔	도시형 식물농장 인하대 후문 Guitar King 인천시 홍보대사 인천화경공단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쉐라톤 인천 이상훈 검암한옥 장어진 뮤지컬 '셜록 홈즈-앤더슨가의 비밀' 외 산업화시대의 인천 인천으로 기업들이 몰려온다 외 의원연구단체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울목도서관 3월 문화행사 외 스티브 잡스의 이메일 박스 외 영종도의 아침 외 인천대공원 장금석 시 소통기획관실

5월호	소통과 화합	
	가정의 달 특징 포커스 아름다운 사람 인천인이 사랑한 오래된 밥집 Culture News 뮤지컬 5월, 흥겨운 축제에 빠지다 Zoom In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시정뉴스 의정뉴스 생활정보 이달의 서평 인천 사는 이야기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모닝 커피 한잔	가족은 나의 힘 감사의 마음 전하기 봉사와 재능기부하는 어르신들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음악평론가 배영수 논현동 호구포식당 인천시립교향악단 가족음악회 외 우모자(Umoja) 여우(女優), 태극마크 달다 산업화시대의 인천 송도에 국내 첫 세포배양배지 제조시설 입주 외 인천여고 모의의회 체험 외 캠퍼스마트시티 도시인문아카데미 외 10년차 직장인 사표 대신 책을 써라 외 봄에 만나는 가을 외 월미도 문화의 거리 경인방송 FM 90.7MHz 민병우 대표이사


6월호	소통과 화합	
	2013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Enjoy Incheon 포커스 인천 바다, 그 속살 아름다운 사람 Culture News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시정뉴스 의정뉴스 생활정보 이달의 서평 인천 사는 이야기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모닝 커피 한잔	수인선 개통 1주년 하늘정원 고잔 갯벌 인천시립합창단 우효원 작곡가 인천시립극단 정기공연 외 산업화시대의 인천 그동안 많이 찾아왔지... 더 이상은 힘들어! 외 교육위원회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의 외 6월 문화행사, 당신을 부른다 외 도르와 함께한 인생여행 외 외할아버지와 손자 외 수봉공원 노준선 인천서구환경단체인협의회 사무국장

8월호	소통과 화합	
	Ice 인천 Cool 인천 포커스 인천 바다, 그 속살 인천인이 사랑한 오래된 한식당 아름다운 사람 문화뉴스 여름 특징공연 시정뉴스 의정뉴스 생활정보 이달의 서평 인천 사는 이야기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모닝 커피 한잔	극지연구소 홍보관 동남스포피아 아이스링크 얼음 요리 스킨 스쿠버 생활협동조합 만석부두, 그 안(內) 포구 1억조 갈비 청소년 문화기획자 정윤호 산업화시대의 인천 커피콘서트Ⅶ 외 청소년을 위한 썸머 페스티벌 유네스코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 외 이성만 제 6대의회 후반기의회 의장 외 울목도서관 8월 문화예술 행사 외 일심일연 외 물의 나라 공주님 외 경인아라뱃길 최미라 (사)여성인권 동감 대표

10월호	소통과 화합	
	제94회 전국체육대회 겉자, 이 가을 즐기자, 이 가을 인천인이 사랑한 오래된 한식당 아름다운 사람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문화뉴스 시정뉴스 의정뉴스 생활정보 이달의 서평 인천사는 이야기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모닝 커피 한잔	체전개요 경기일정 신설경기장 활용 전국체전 유망주 인천 전국체전의 발자취 인천명소 인천 돌래길 5코스 캠핑 '맛좋은집 소머리국밥' 류은규 사진가 산업화시대의 인천 올리아 피셔&드레스덴 필하모닉 내한공연 외 2014년,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립니다 외 강화경기장 현장방문 외 미추홀도서관 문화행사 참여하세요 외 일하는 즐거움 나이들의 행복 외 송도에 크루즈가 왔어요 외 차이나타운 장현식 인천기상대장

7월호	소통과 화합	
	Summer Story 민선5기 제3주년 특집 포커스 I 포커스 II 아름다운 사람 Culture News 피카소 전시회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시정뉴스 의정뉴스 생활정보 이달의 서평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모닝 커피 한잔	문갑도 공항철도 타고 바다로 인천의 숨 곳들 인천의 섬 청소년 웹진 Moo기자들과 좌담회 우리시 합동 투자유치설명회 글로벌 기업이 몰려온다 시인 김영숙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29회 정기연주회 외 산업화시대의 인천 인천의 성장 잠재력은 세계 두 번째! 외 '지방자치발전 증진 업무협약' 체결 외 GCF 로고 공모 외 마흔앞이 외 인천연안부두 안정모 인천밴드협회 회장

9월호	소통과 화합	
	특집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오픈 인천의 속살 아름다운 사람 인천인이 사랑한 오래된 한식당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문화뉴스 문화공연 시정뉴스 의정뉴스 생활정보 이달의 서평 인천 사는 이야기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모닝 커피 한잔	인천의 세계문화 인천의 오래된 서점 시 책읽기 사업 및 프로그램 소개 미리 보는 인천한국대문학과 학수부두에서 묵선 만드는 '노아부부' 작은자아간학교 최성미 교사 신포회진 산업화시대의 인천 인천시립교향악단 제330회 정기연주회 외 얼썬! 흥겨움에 어깨춤이 절로~ 외 박근혜 대통령, 인천시 방문 외 현장방문 건의사항 이행 '합격점' 외 울목도서관 9월 문화예술 행사 외 김난도의 내·일 외 미리 읽어 보는 웨딩드레스 외 송도미추홀공원 정희숙 도시공간활용연구소 대표

11월호	소통과 화합	
	가을바다 강화 역사산책 포커스 김장 아름다운 사람 인천인이 사랑한 오래된 한식당 사진으로 보는 정명(定名) 600년 문화뉴스 시정뉴스 의정뉴스 생활정보 이달의 서평 인천사는 이야기 도도(都島), 그림으로 말하다 모닝 커피 한잔	바다약초 함초 함초요리 역사문화 여행지 10선 강화고려역사재단 청라 로봏랜드 청라국제도시 배추농사 짓는 인천 도시농부 김장철 인천채소 패션디자이너 김 테일러 '전통밥상' 집 백반 산업화시대의 인천 인천시립교향악단 기획연주회 외 국제기구 잇달아 유치 외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현장 방문 외 미추홀도서관 문화행사 참여하세요 외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외 자유공원 아래 이야기 외 소래 박상문 인천의제21실천협의회 상임회장

새로운, 여성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글 장부연 인천여성가족포럼 대표



오랜 공직생활 동안 인천 여성들은 언제나 나의 주된 의논 상대이자 믿음직한 파트너였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 일상적인 마주침 속에서 여성들을 만나며 소통하고 있다. 인천 여성 시민들의 공간인 이곳 여성가족재단의 수많은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는 인천 여성들이 당면한 고민과 잠재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여성가족정책의 현장은 참으로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 인천시정 전반에 걸쳐 여성과 가족이 관계되지 않는 정책과 사업이 없다고 보아도 과하지 않을 것이다. 여성친화 도시 사업, 가족친화기업 사업 같이 부서와 행위 주체 간의 경계를 뛰어 넘어 상호협력과 책임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여성가족정책의 프레임이 점차 재구성되고 있다. 도시가 성장할수록, 또 여성의 생애주기가 복잡하고 다양해질수록, 변화한 사회현상을 반영하여 기존의 정책이 닿지 못하는 영역과 의제를 발굴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다. 그리고 여기에는 소수의 권위자와 특정 집단의 노력이 아닌,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더 많은 주체들의 참여와 소통의 노력이 요구된다. 여성의 일·가정 균형에 대한 요구, 성폭력·가정폭력 등 사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의 문제, 여성들의 관계 중심적 소통과 공동체의 문제를 고민하는 여성단체와 협동조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이 그간 여성의 생활세계에서 발굴해 낸 이슈와 정책화의 사례다.

일상에서 의제와 대안을 모색하는 일은, 생활정치 실현의 범주이자 그 책임이 있는 지자체 단위에서 우선 지원하고 실현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시민은 정책의 현장이자 목적이다.

이런 공통의 이해를 바탕으로, 인천시와 여성가족재단은

지역 특색을 살린 여성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민·관·학 협력기구인 ‘인천여성가족포럼’을 발족하였다. 이 포럼은 여성, 청년, 아동, 노인을 위한 지역밀착형 여성가족 현안을 진단하고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회원 중심의 연대와 교류의 장이다. 지역 여성가족 정책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집단 및 시민들을 위한 총아홉 개 세부 분과 활동과 정기 포럼을 가질 예정이다. 벌써 성 평등한 인천을 만드는데 뜻을 함께 하는 삼백여 명의 시민들이 포럼의 발대와 내년도 본격적인 활동 개시를 기다리고 있다.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인적, 지적, 문화적 교류는 지역 여성가족정책의 건실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포럼 회원들 간의 크고 작은 공동의 실천은 인천의 여성리더십의 확산과 계승의 교두보가 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시정참여의 기회가 될 이번 포럼에 지역사회가 거는 기대가 적지 않음을 느낀다. 서로의 차이가 소통의 계기가 아닌, 편 가르기와 단절의 잣대가 되는 요즘, 인천여성가족포럼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 인천여성가족포럼의 시작이 성별과 연령, 계층 등 경계를 초월한 풀뿌리 젠더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협력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내 가슴에 새긴 한 구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 이곳에서 깨어 있음이다 - 법정스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집안을 청소하듯, 책상을 정리하듯, 마음속의 잡동사니를 비워내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구절을 마음에 담았다.



2013년 13월? 정중히 사양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맘때 쯤이면 잡지마다 별책부록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사실 그건 눈 가리고 ‘아웅’이었습니다.

그거 다 압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별책부록 있는 잡지에 손이 갔습니다.

2013년의 ‘시간부록’으로 2013년 ‘13월’을 원한다면 염치없겠쥬?

을 한해 삼백예순다섯 개의 새로운 햇님과 달님을 공짜로 받았는데 또 덤이라니...

독자 여러분,

미련없이 남김없이 후회없이 후퇴없이

한해를 ‘쿨’하게 배웅하시고

새해를 ‘핫’하게 맞이하시지요. (꾸벅)

- 노을 지는 인천대교

글 · 사진 유동현 본지편집장